

강 경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모-아간 상호증진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유아 애착안정성
및 어머니 민감성에 관한 연구

- 효과검증연구 -

2009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서 동 미

모-아간 상호증진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유아 애착안정성
및 어머니 민감성에 관한 연구

- 효과검증연구 -

강 경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서 동 미

인 준 서

서동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강 경선 

심사위원 송 인경 

심사위원 이 인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개발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어머니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애착형성기인 유아와 그 어머니에게 적용하여 어머니의 민감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모-아 관계에 건강한 애착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모-아가 올바른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연구는 만3세 발달장애유아와 일반유아 그의 어머니 총 1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장애유아 실험집단 4쌍 통제집단 4쌍, 일반유아 실험집단 4쌍 통제집단 4쌍으로 나누었으며, 실험집단은 한 회기에 약 40분씩 일주일에 2~3회, 총 15회기에 걸쳐 본 연구의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로는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애착행동 Q-set과 모성행동 Q-set을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준거점수와 분류점수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의 애착안정성 변화, 어머니 민감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집단별 사전 · 사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쌍별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장애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향상되었다. 장애유아의 애착 행동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유아의 점수가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5$).

둘째,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일반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향상되었다. 일반유아의 애착 행동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유아의 점수가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1$).

셋째,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장애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가 향상되었다. 어머니 민감성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가 통제집단의 민감성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넷째,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일반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가 향상되었다. 어머니 민감성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가 통제집단의 민감성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의 민감성에 영향을 주는지 그 적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민감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모-아 관계에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나아가 모-아가 올바른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II. 이론적 배경	8
1. 애착이론	8
1) 애착이론과 특성	8
2) 애착 형성 단계와 발달영역	17
3)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21
4) 어머니의 민감성과 모아-애착	25
2. 발달장애유아와 부모	27
1) 발달장애 유아의 부모심리	27
2) 발달장애 유아의 모-아 애착	29
3.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31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7
1. 연구대상	37
2. 측정도구	40
3. 연구설계	43
4. 연구절차	44

5. 자료분석	44
6.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내용	45
1) 측정도구 설정에 대한 근거	45
2)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	47
3) 음악치료 프로그램 목적	50
7. 모-아 상호증진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55
IV. 결과	60
1. 결과 및 해석	60
1) 장애유아의 애착안정성 변화	60
2) 일반유아의 애착안정성 변화	62
3) 장애유아의 어머니 민감성 변화	65
4) 일반유아의 어머니 민감성 변화.....	67
2. 애착안정성 및 어머니 민감성에 관한 내용분석	70
1) 장애유아 실험집단의 전반적인 행동변화	70
2) 일반유아 실험집단의 전반적인 행동변화	73
3. 논의	76
V. 결론 및 제언	79
1. 결론	79
2. 제언	81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차

<표 1> 대상자 사회성숙도(SMS) 검사	38
<표 2> 사회성숙도(SMS) 검사 내용	40
<표 3> 연구 설계 모형	43
<표 4> 모-아간 상호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조	50
<표 5> 음악치료 프로그램 목적 및 하위목표	51
<표 6> 모-아 상호작용 음악활동 프로그램	55
<표 7> 장애유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애착안정성 비교	60
<표 8> 장애유아 실험집단의 애착안정성 사전, 사후 검사	61
<표 9> 일반유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애착안정성 비교	63
<표 10> 일반유아 실험집단의 애착안정성 사전, 사후 검사	64
<표 11> 장애유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어머니 민감성 비교.....	65
<표 12> 장애유아 실험집단의 어머니 민감성 사전, 사후 검사	66
<표 13> 일반유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어머니 민감성 비교	68
<표 14> 일반유아 실험집단의 어머니 민감성 사전, 사후 검사	69

그림 목 차

<그림 1> 장애유아 애착안정성 변화	62
<그림 2> 일반유아 애착안정성 변화	64
<그림 3> 장애유아 어머니 민감성 변화	67
<그림 4> 일반유아 어머니 민감성 변화	6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으로 태어난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은 가정이다. 유아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처음으로 인간관계, 사물에 대한 태도, 생각, 행동 등을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유아는 출생과 더불어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의 공간에서 출발하여 점차 더 넓은 생활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사회화 되어간다. 특히, 주 양육자와 형성하는 특별한 정서적 유대인 애착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존재로서 유아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는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구조를 형성하며 사회 · 정서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 유아는 자신에게 안정감과 안락감, 신뢰를 주는 것으로 믿어지는 특정 양육자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며, 이러한 애착 안정성은 양육자가 자녀에게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믿음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Sroufe, 1983).

Winnicott(1965)는 유아가 아동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아의 발달과정을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Sheldon, 2005). 성숙과정의 전개를 위해서 환경이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좋아야 한다.” 고 하였으며, 모성적 환경을 떠난 유아는 생각할 수 없으며,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의존 관계는 성숙과정을 위한 핵심적인 축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자아관계”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타자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발달과정 전체는 “충분히 좋은” 모성적 환경에 달려있으며, 이 시

기 동안에 어머니는 아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그 표현에 반응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안정애착은 사회적 · 정서적 유능성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기 효능 감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Waters, Wippman, & Sroufe, 1979). 뿐만 아니라, 이후의 문제해결, 자기 의지, 타인과의 조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감정 이입 능력, 지도력, 동기 부여, 자기조절, 자기 주장력, 융통성, 사회적 능력 등의 많은 긍정적 속성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전우경, 2003). 반면, 어머니에 대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또래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공격적이며, 적대적 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고립되는 경향이 많다(La Freniere & Sroufe, 1985). 또한,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술이 미숙하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이 낮다고 보고되었다(Karen, 1990). 유아와 양육자간의 불안정 애착은 이후의 사회, 정서적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 병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짐으로써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모-아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 행동이 나타나는 영아기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어머니와 자녀간의 초기 상호작용의 질은 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alhoun & Rose, 1989), 상호작용의 일치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부모의 민감한 반응은 애착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박은희, 2008).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인식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것은 애착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어머니에게 자녀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Beal, 1986), 자녀의 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자녀의 애착 증진의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Furr & Kirgis, 198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특

성 중에서 특히 민감성에 주목한다. 유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이 유아의 안정애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69). 어머니가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유아가 보내는 만족의 신호는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로서의 효능감과 조망수용능력의 기회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는 안정애착 형성에 기여한다(박은희, 2008). 어머니의 민감성은 양육자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중재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애착 안정 프로그램의 유효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부여되는 양육 스트레스 뿐 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물론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문제는 상호 순환적이어서 유아의 문제가 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유아의 교육과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양지은, 2007).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여주는 양육태도나 반응이 적절할수록 신뢰감이 형성되고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정희(1999)는 어머니가 과다하고 지속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은 자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아 교육에 어머니의 참여와 적극적 개입을 권장하고 있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불필요한 정서적 부담감을 줄임으로써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관계를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영, 2004).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는 상호 순환적이고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은 유아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머니 대상의 지원활동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전미혜, 이한우, 2001). MacQuarrie(2000)는 부모로서의 적응기술과 대처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모-아의 집단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부모가 치료에 참여하여 정보를 얻고 역할을 모델링하게 하였더니, 세션 과정뿐만 아니라 부모 상담에 적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증상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어머니 모두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상호작용의 일치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부모의 민감한 반응이라고 하면서 애착발달에 있어서 모-아간의 초기 상호작용과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박은희, 2008). Egeland와 Farber(1984)의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어머니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일관되게 반응하며 보다 협동적이고 유아의 신호에 민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또한 유아의 교육에 있어 생태학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며 강조되고 있다(양지은, 2007). 그러므로 유아에게 양적 및 질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모-아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통해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나아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악활동을 통한 모-아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고 반응을 보이는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어머니와의 상호 관계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음악적 경험이 언어적 경험보다 선행되며 원시적이고 생리적인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관계를 발전시켜주기 때문이다. Stern(1998)은 ‘음악을 통한 상호작용 더 높은 수준의 활동들과 함께 새로운 즐거움을 일으킨다’고 설명하며, 음악적 변수인 음높이, 소리, 크기, 멜로디, 강약 등을 사용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형태에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라 할 수

있으며, 연주의 흐름, 템포, 크기와 같은 동적 특성들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
가 감정적인 조절과 함께 전환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어
머니는 ‘음악’이라는 즉흥성의 힘을 통하여 부모로서의 과도한 긴장과 걱정
들을 제어함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상호작용의 완고한 방식
들이 유연한 방식으로 변화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상호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하는 음악 치료의 가장 중요한 측
면이라 할 수 있다.

모-아를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음악을 매개로 프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모-아의 애착이 향상되었고(정성화, 2003), 상호작용
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이선영, 2005) 보고되고 있다. 정성화
(2003)는 자폐성 장애유아의 모-아 애착증진에 관한 연구에서 노래는 서로
간의 벽을 허물어 주어 모-아간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극해준다고 하였다.
또 음악은 효과적인 동기 유발제로서 음악의 긍정적 효과를 일관적으로 계
속하여 지지할 경우 유아로 하여금 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이선영(2005)은 반응성 애착장애 유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오디 음악활동이 육성을 통한 진행으로 모-아로 하여금 음악
을 귀 기울여 듣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는 수업으로 유아의
반응을 중시하며 민감한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애착 재 경험을 하
는데 있어 모-아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오
디 음악활동의 중요한 교수원리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부모와의 음악활동은
어머니와 유아의 음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므로 중요하다.
또, 유아는 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놀이로서의 음악활동은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게 도와주어 자연스럽게 놀이 환경 속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기술
이 증진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서 오디 음악활동을 실시한 결과, 활동 전
과 비교해봤을 때 유아의 사회성 지수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자유놀

이 및 음악 상황 안에서의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변화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정순주(2001)의 연구에서 신체표현활동을 통해 모-아 애착행동, 동료와의 애착행동, 대인간 애착행동에 큰 효과가 나타났듯이 모-아의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과 악기와 음악을 사용한 청각, 시각, 촉각 등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신체표현 활동으로 그 효과를 더욱 더 기대할 수 있다. McDonnell(1984)은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유아가 소리와 리듬 등의 청각적 자극으로부터 보호와 안전의 느낌을 가지게 되며, 친근한 노래는 긍정적인 연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음악을 통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긴장을 해소해주며, 상처를 위한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노래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부정적 감정, 저항 등의 불평등한 관계를 드러내주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모-아 간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극해 준다고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을 만 3세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적으로는 충동조절 능력이 생기는 시기이며, 외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탐색능력이 확장되는 시기로 어머니와 유아 관계에서 자기주장이 생기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의 유아는 발달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머니에게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를 형성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요구하기도 하는 양가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머니는 유아의 과도한 주장과 충동성을 조절해 주어야 하며, 유아에게 적절하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도 제한을 부여해야 하고, 신체적 근접성과 친밀감을 통해 유아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이정화, 2005) 어머니의 민감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것과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개발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의 민감성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1.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장애유아 집단 중 음악치료를 받은 실험집단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 통제집단 점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일반유아 집단 중 음악치료를 받은 실험집단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 통제집단 점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어머니 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장애유아 집단 중 음악치료를 받은 실험집단의 어머니 민감성 점수와 통제 집단 점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일반유아 집단 중 음악치료를 받은 실험집단의 어머니 민감성 점수와 통제 집단 점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애착이론

1) 애착이론과 특성

유아는 태어나면서 자신을 돌보는 양육자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맺게 되는데 이는 인간관계의 기초를 마련하며, 이후 주변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전감을 발달시킨다. 애착 행동이란, 애착되었거나 애착되려는 인물과 접촉하고 접근하며 의사소통 하려는 다양한 행동을 뜻한다. 상황에 따라 애착 행동의 강도와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인간의 성장 · 발달과 더불어 애착 행동의 형태는 변화된다(Ainsworth, 1989).

인간의 애착이 왜,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지에 대해 각 이론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정신분석 이론

Freud(1939)는 인간발달에 두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하나는 인생의 초기 발달이 인성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인간 발달이 일정한 심리성적 발달단계를 따른다는 것이다. 성인행동의 근원은 유아 초기의 발달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어렸을 때 유아 주위의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성이 자란 후에 학습, 사회적 적응 및 불안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강문희, 2007). 이와 같이 초기의 발달경험이 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심리성

적 발달과정으로 설명하며,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성의 본능인 리비도가 집중되는 신체부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애착의 발달을 심리성적 발달로 보고, 어머니가 영아에게 수유함으로써 빨기와 같은 구강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애정의 대상이 되며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애착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에릭슨(1963)은 영아의 수유 욕구를 비롯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안정된 애착형성뿐만 아니라 세상 전반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는 일이라고 보았다. 일단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영아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하면, 환경을 탐색하게 되고 점차 정서적인 지지자로서 어머니에 대한 내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강문희, 2007). 일반적으로 영아의 생리적 욕구를 조절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긍정적인 애착형성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이후의 사회성 발달, 성격발달,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모자관계 연구를 자극하는 동기가 되었다(Beck, 1994).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영아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대상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Freud의 기본견해들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유아의 출생이나 성장과정에서 유아의 성격형성과 정신생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대상(object)라고 부르고, 이들과 유아의 관계성을 대상관계(object relation)라 한다. 유아들은 양육자들과 밀접한 신체적 · 정서적 애착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결합성을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Seifer & Hoffnung, 2000). Mahler(1975)는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 중에서도 부모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Frank, 2004). 부모는 유아의 리비도 즉, 삶의 본능 속의 성 본능에 내재하는 정신적 에너지와 공격적 충동표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유아와 부모의 대상관계에서 자신의 사랑과 공격적 경향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둘을 융합시킬 수 있게 하는 리비도를 발산할 수 있는 통로를 유아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부모의 성격은 유아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았다(Greenberg & Mitchell, 1983). Mahler(1975)에 의하면, 적응이란 개인이 인간 환경(human environment)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며, 발달의 목표는 유아가 공생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타자의 세계에서 안정되고 개별적인 정체성을 획득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성공적인 발달의 기준이라고 보았다(Frank, 2004). 이 이론은 성숙의 측면보다 일차적 양육자와 충분한 관계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정감, 안전, 유쾌감 등으로 인해 애착이 형성되며, 공생과 분리-개체화라는 두 개념을 사용하여 유아와 어머니의 수많은 상응작용(transactions)을 통해서 정신적 표상들이 형성됨을 강조하였다(Frank, 2004).

Winnicott(1965)는 유아가 유아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유아의 발달과정을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는데, 성숙과정의 전개를 위해서 환경이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좋아야 한다”고 하였다(Sheldon, 2005). 모성적 환경을 떠난 유아는 생각할 수 없으며,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의존 관계는 성숙과정을 위한 핵심적인 축이라고 하였다. 첫 발달단계에서 유아는 분리됨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유아와 어머니 관계는 신체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유아는 만져지고 안겨지고 쓰다듬어지는 등의 신체접촉의 경험을 통해서만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이때, 안아주기란 신체적 접촉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의미이다. 상대적 의존단계에서 유아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부화”의 과정을 경험하는데, 내부와 외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신체접촉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는다.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자아관계”는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타자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독립을 향해 가는 단계에서 아이는 이전 단계에서보다 신체적 욕구와 감각에 훨씬 덜 의존하며, “내적 환경”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로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홀로 있기를 추구하기도 한다. 이 시기 어머니는

아이의 의존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어머니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성취할 때, 아이가 가족 안에서 다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어머니와 유아 간의 어린 시절 경험들은 유아의 발달 및 생애 전반적인 부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며, 이러한 모성적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필연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유아로 하여금 “충분히 좋은” 모성적 환경이 제공되도록 어머니가 유아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허용해주고, 그 표현에 적절히 반응해주도록 함으로써 모-아간의 올바른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행동주의 이론

학습이론은 유아가 태어났을 때, 백지상태와 같다는 Lock의 경험주의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인간발달은 질적으로 다른 발달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경험이 쌓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환경결정론을 주장한다. Watson(1920)은 외적 자극과 관찰될 수 있는 반응간의 연합이 쌓여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인간발달로 보았다. 유아발달은 환경에 의존되므로 부모나 유아 주위의 성인은 자극과 반응의 연합을 계획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유아를 어떠한 방향으로든 키울 수 있다고 믿었다(강문희, 2007). 이후, Skinner(1953)는 유아의 행동은 행동에 뒤따르는 여러 종류의 강화물인 음식이나 마실 것은 물론 칭찬, 미소, 새로운 장난감 등에 증가될 수 있고, 또 벌을 받는 것으로 야단을 맞거나 특권을 빼앗는 등의 방법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유아의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Pavlov(1927)나 Skinner(1953)의 학습이론에서 유아는 주로 외부환경이 형성하는 영향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봄으로써 발달에 있어서 경험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며, 발달이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속적인 경험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조희숙, 1994).

행동주의 이론으로 유아의 사회적 행동발달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회학습 이론을 들 수 있다. Bandura(1977)은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이 광범위한 유아의 행동발달에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최경숙, 2006). 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이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든 단순히 주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된다는 점을 주시하였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애착을 다른 학습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된 반응으로 보고 유아의 욕구충족으로 설명하였다. 애착형성은 어머니가 유아의 배고픈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미소, 다정한 말, 피부접촉을 반복하여 제공함으로써 연합되어 학습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유아는 어머니와 즐거운 감정을 연결하게 되고 어머니는 이차적 강화인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이차적 강화인은 처음에는 중립적 자극이던 것이 다른 강화자극과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강화인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차적 강화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유아 역시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머니와 가까이 있기 위해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행동들 즉, 미소 짓기, 웃기, 따라가기 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일차적인 욕구충족을 통해 발달한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애착보다는 의존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할로우(Harlow)의 원숭이 실험연구는 애착형성 요인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새끼 원숭이를 우유를 제공해 주는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와 우유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형겅으로 된 어미 원숭이의 두 모형에서 길렀더니, 형겅으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 더 애착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수유 만족으로 설명되기보다 밀접한 신체접촉의 욕구도 중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유아의 요구에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자녀가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유아의 행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과 요구

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히 대처하게 함으로써 모-아간의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고, 올바른 상호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③ 인지발달이론

인지발달이론은 유아가 발달해가면서 유아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Piaget(1969)의 이론에서는 유아가 능동적으로 외부세계를 탐색하고 조작함으로써 인지구조의 변화가 생겨 인지발달이 일어난다고 보았으며, 발달적 정보처리 이론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상징조작체계로서 인간의 마음을 간주하여 이러한 마음의 변화과정으로 유아사고의 발달과정을 설명하였다. 신체구조가 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듯이 사고의 구조도 외부세계와 맞도록 점차 발달해 간다고 생각하였다(최경숙, 2006).

인지이론에서는 애착을 본능이라고 강조하기 보다는 성숙을 중요시한다. 즉, 영아의 인지발달이 선행되어야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아가 자라면서 친숙한 어머니에게는 애착을 형성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불안해하는 낯가림을 보이는데 이 낯가림은 애착행동의 발달과 동시에 나타난다. 이는 어머니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적 변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최근의 연구에서 이 낯가림은 두뇌 전두엽의 성숙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최경숙, 2006). 또한 대상영속성 개념도 획득해야 애착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지각된 어머니를 기억해야 어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발달 측면에서 모-아간의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려면 유아로 하여금 어머니는 자신의 요구를 수용해주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안정적인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어머니와 유아간의 올바른 상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아간의 신뢰와 안정감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④ 동물행동학적 이론

인간행동의 발달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동물행동학에서는 동물의 적응과 진화적 과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봄으로써 행동의 적응력 또는 생존적 가치와 진화적 근거에 관심을 갖는다. 유아발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온 '결정적 시기'는 제한된 시간 내에 유아가 특정한 적응적 행동을 학습하도록 생물학적으로 준비되었으며, 그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환경 내의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특정능력이 발달하는데 최적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유아는 이 시기에 특정 환경의 자극에 대하여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 시기를 지난 후에는 그 능력이 발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

동물행동학적 이론에서 유아는 선천적으로 성인에게 신호를 보내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으며 그 신호가 성인으로부터 양육 및 사회적 행동을 이끌어 내게 함으로써 애착이 발달된다고 보았다. 동물행동학적 이론(ethological theory)은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애착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많은 행동을 기본적으로 선천적 이론 중 특유의 특성이 본능적인 것에 있다고 보았다. 로렌츠의 각인 연구에서 처음 시작되어 Bowlby(1973)는 애착발달이 사회적 학습에 의해 촉진되기는 하지만, 다른 동물의 각인과정과 유사하게 생존유지 및 보호를 위한 본능적인 반응의 결과로서 이미 생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생득적인 반응인 빨기, 울음, 미소, 매달리기, 따라다니기, 어머니 얼굴 쳐다보기 같은 부모의 보호를 끌어낼 수 있는 신호체계를 갖고 유아는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유아의 울음은 적응적인 요소로 유아의 기본욕구 배고픔, 목마름, 안정 등을 충족시키고, 유아가 애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접촉을 하게 된다.

애착은“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Bowlby, 1969),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의 원형으로 특정대상과의 단순한 정서적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유아는 출생 후 오랫동안 타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을 보장받음으로써 자녀는 양육자에게 자신의 욕구를 요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충족 받을 때 안전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정애착은 유아와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의 산물이며, 부모의 역할이 유아의 애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애착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애착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애착은 보편성을 가진다. 이는 모든 부모-자녀 간에 형성되는 것으로써, 생존을 위해 모든 유아는 어머니에게 애착을 느끼며 어머니와 접촉하고 가까이 하려는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족의 유아에게서 애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성 결핍을 주 증상으로 보이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낯선 상황에서 양육자를 다른 어른에 비해 더 선호하고 더욱 분명한 애착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이는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선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속도가 다를 뿐 애착이 형성된다는 애착의 보편성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모든 유아에게 애착이 형성되나 애착의 질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애착의 질이 각기 특성마다 다르며 이를 애착의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애착은 다양성을 가진다. Bowlby(1969)의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자아감과 관련되는 자기(self)에 대한 모델과 타인의 대

한 신뢰감으로 표현되는 타인에 대한 모델로 구분되는데, 주 양육자가 편안함, 안전, 탐색 등을 원하는 자녀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고, 일관성 있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유아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표상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표상은 나아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뿐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틀을 제공한다 (Kolhnen & John, 1998). Ainsworth(1972, 1989)에 의하면, 어머니와 자녀간의 애착유형은 안정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불안정-저항 애착 등 3가지로 나누며, 각각의 애착안정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세 번째, 애착은 상호성을 가진다. 애착의 상호성은 애착의 질적 차이가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방법과 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의 방법과 질은 어머니의 특성이나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 뿐 아니라, 상황적인 특성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결정된다 (Egeland & Faber, 1984). 애착의 상호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유아관련 변인들에 관심을 보였다. Bowlby(1969)는 애착관계처럼 친밀하고 양가적인 관계에서는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끼리 상대방에 대해 학습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다양한 특성과 행동을 선보이는 등의 모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Ainsworth(1989)도 애착의 질은 어머니의 민감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며, 어머니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애착은 안정성을 가진다. 안정성이란, 한번 형성된 애착의 특성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정애착이 불안정애착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이 된다.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에 비해 높은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악화 등의 다양한 변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처럼, 한번 형성

된 애착유형은 잘 변화되지 않지만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애착의 형성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애착은 한 사람의 생애동안 계속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를 애착의 연속성이라고 한다(장휘숙, 2001). 애착에 관한 연구 중 상당수가 애착의 연속성에 관한 것들로,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은 유아기 및 성인기에 여러 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초기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이를 다른 상황이나 사람에게 일반화한다(Barnett et al.,1987). 위에서 언급한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변화에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재구조화하기가 힘들며, 한번 형성된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유아기는 물론 청소년 및 성인기의 여러 발달영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2) 애착 형성의 단계와 발달영역

Bowlby(1969)는 출생 직후부터 애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영속성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인지 개념이 발달되고 애착 대상과의 풍부한 상호작용을 한 후에야 애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는 애착행동의 발달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애착 행동 발달의 1단계는 생후 8~12주 사이로 전(前) 애착 단계로 불린다. 이때 영아는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자신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해 주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애착 전조 행동으로 울기, 빨기, 미소 짓기, 움켜잡기 등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영아들이 가람을 분명히 구분해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착행동의 2단계는 생후12주~6개월에 이르는 애착 형성기로 영아는 낮익

은 애착 대상에게 뚜렷한 신호를 보낸다. 자신이 보낸 신호를 양육자가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 비해 양육자와의 놀이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위로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3단계는 2세말까지 계속되는 시기로 진(眞)애착단계이다, 영아는 능동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애착인물에게 접근하면서 계속 가까이 있으려는 성향을 나타내며, 낯선 이에 대한 불안감이나 격리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탐색을 위한 안전기지로 어머니를 사용하며, 목표수정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영아는 분명하게 주 양육자를 인식하고, 그 사람과 독특한 상호작용 유형을 전개해 나간다(Gardner, 1982).

마지막 4단계는 목표수정적인 동반자적 관계(goal-corrected partnership)를 보이며 3세부터 유아기 말까지 해당된다. 이 시기에 유아는 애착 대상의 행동을 예측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가 자신만의 계획과 행동을 지닌 독립된 대상임을 알게 되면서 부모들이 자신의 목표대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거나 또는 부모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계획, 조정할 수 있게 된다(Ainsworth, 1982).

이렇듯 애착형성은 유아의 발달 단계와 시기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며, 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법도 각기 달라야 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유아의 발달단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양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착은 한 사람의 생애동안 계속 지속되는 관계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며, 애착관계의 특성이 애착 형성 이후에 발달된 다른 관계 예컨대 또래 관계, 이성관계의 특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주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타인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가정과 사회에서 유아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Egeland & Sroufe, 1981). 애착이 유아의 후기 발달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자녀 사이의 애착 관계 형성은 인간의 사회·정서적 발달의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로 인식되게 된다(Lamb et al, 1992). 어머니와 형성된 애착이 한 사람의 생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 영역이다, 안정애착은 유아의 또래관계(윤은수, 1994; 이진숙과 조복희, 1999; 최정미, 2002; Fagot, 1997)나 청소년 및 성인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인의 배우자 선택(장휘숙, 2001)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Fagot(1997)는 종단연구를 통해 156명의 유아의 애착과 또래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애착 유형에 따라서 다른 또래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안정애착 유아는 또래로부터 인기 있는 친구로 지목되었다. 또한,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Wartner, 1994; 김은실, 2007). 이 영역은 애착이 영향을 주는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두 번째 영역은 정서조절 및 행동문제 영역이다. Cassidy(1994)는 안정애착 유아는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충분히 표현하며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안정애착 유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고 견뎌낼 수 있으나, 불안정애착유아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거절당하고 무시당한 경험에 의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한다. 특히,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자신이나 타인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인지적인 체계로써 유아가 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지각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안정 애착유아는 정서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행동들을 더 많이 보인다.

세 번째 영역은 자아감 및 자아 존중 감의 영역이다. Bowlby(1969)는 자

아개념을 내적실행모델로 설명하였다. 자아에 대한 실행모델은 능동적인 구조로써, 행동, 인지, 정서에 영향을 준다.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만약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유아는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로 느끼지만,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유아는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낀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은 자신에 대한 표상을 내면화하며 이런 내면화는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따라서 안정 애착유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손혜숙(2003)은 어머니와 교사 모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성차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보였다고 하였다. 박아청(2003)도 양육자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유아기에 긍정적인 자기상(self-image)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네 번째는 인지 및 지적 발달의 영역이다. 유아는 양육자에 대한 애착 형성을 통하여 양육자를 안전기지(safe-base)로 지각하며 안전기지를 기반으로 낯선 환경이나 사물을 탐색한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양육자에 대한 안정적인 표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에 비하여 환경이나 사물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이런 활동들이 반복되면서 유아기의 인지 및 지적 능력이 발달한다(Bowlby, 1969). Jacobsen과 Hofmann(1997)은 학령기 아동의 애착표상과 학업성적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긍정적인 애착표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성별, 지능, 언어능력에 관계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하였다. Moss(2001)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 유아는 학령기에 의사소통능력과 학업 성취도가 높았으며 성취동기도 높았다고 보고되었다. 반면에, 불안정-회피 애착이나 불안정-혼동 애착 유아들은 인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보였다. 애착은 학령기 아동의 학습 능력 뿐 아니라 학령전기 아동의 주의력(Fearon & Belsky, 2004) 및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Fearon & Belsky(2004)는 54개월 된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과 주의집중 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안정애착 유아는 주의집

중을 요하는 과제수행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애착의 스트레스 조절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안정애착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cortisol)수준을 감소시켜서 유아가 주의집중력과 기억능력에 도움을 주고, 불안정 애착은 코티졸(cortisol) 수준을 증가시켜서 스트레스 조절기능을 덜 작동시켜서 유아의 주의집중력과 기억능력을 감소시킨다(김현정, 2005).

애착이 연속성을 지지한다는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애착은 인간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 지속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며, 애착유형과 질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애착을 부모와 유아사이에 세워진 '관계의 구조'라고 볼 때 부모-자녀간의 축적된 상호작용의 경험은 애착의 질을 예언하는 결정적인 변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아간의 올바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도록 조기 개입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

영·유아기 때의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아기 경험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자녀와의 안정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Cowan 등(Cowan et al., 1996)은 자신의 어린 시절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이나 기대 등에서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자녀와 애착관계를 맺는 과정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유아기 때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자신의 자녀와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며, 민감하고 지지적인 양육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Belsky, 1984; Crowell & Feldman, 1988; Pederson, et al., 1998).

어머니와 아이가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가에 따라 애착의 특성이 달라지고, 어머니로부터 민감한 양육을 받았을 때 영아는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는 연구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Anderson, 1980 ; Bates et al., ; 1985 Grossmann et al., ; 1985 ; Isabella, 1993 ; Kiser et al., 1986 ; Valenzuela, 1997 ; Wakschlag & Hans, 1999). 어머니가 민감하다는 것은 자녀의 신호를 잘 인식하고 신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의미이다. 자녀의 신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자녀는 어머니를 안전기반으로 삼으면서, 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을 위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생후 몇 년 동안 자녀가 받은 양육의 질적 차이가 안정 애착 및 불안정 애착으로 구분되어 발달하는데 영향을 준다.

애착의 종류에는 안정애착, 불안정-회피애착, 불안정-저항애착이 있으며, 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안정애착은 애착행동과 탐색행동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유아가 낯선 상황에서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활용하여 어머니 곁을 자유롭게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탐색도중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 어머니의 존재를 안전기지로 활용하고 다시 새로운 환경을 탐색한다. 불안정-회피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애착행동과 탐색행동이 불균형한 상태로, 접촉추구의 요구보다 탐색욕구가 더 강해서 낯선 상황실험에서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회 시에도 어머니를 피한다. 불안정-저항 애착 유아는 탐색요구보다 접촉욕구가 더 강해서 어머니가 옆에 있어도 낯선 사람에 대해 불안해하고 어머니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을 불안해하여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도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유아는 또래나 낯선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 의식이 강하고, 또래 끼리 놀 때 놀이의 제안도 많이 하며 감정이입을 잘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인기도 많다 (Water et al, 1979). 안정 애착은 영아기 이후의 사회적, 정서적 유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Erickson, Sroufe, & Egeland, 1985; La Freniere & Sroufe, 1985),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기효능감의 수

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Waters, Wippman, & Sroufe, 1979). 안정 애착 형성은 이후의 동기 부여, 타인과의 조화, 문제해결, 자기조절, 융통성,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감정 이입 능력, 사회적 능력, 자기 의지, 자기 주장력, 지도력 등의 많은 긍정적 속성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다(전우경, 2003).

안정 애착유아의 어머니들은 불안정 애착의 어머니들에 비해 신뢰성, 양육성, 이해력, 자율성, 탐구심이 높은 반면, 공격성은 낮았다(Maslin & Bates, 1983). 또한, 이들은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명랑하고, 적응력이 높고 다정하다(O'Connor, 1997). 어머니가 보다 활동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이고 사교적일수록 자녀의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Grossmann(1982)의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유아의 어머니들은 불안정 애착유아의 어머니들보다 자녀의 울음에 대해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울음을 무시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우는 자녀를 달래기 위해 더 많이 안아주고, 자녀를 안아줄 때 더 애정적이었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안정 애착유아와 불안정 애착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안정 애착유아의 어머니들은 영아의 시각적 주의행동에 더 숙련되게 자신의 향동을 맞출 수 있으며,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 영아의 신호에 대해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고 적절하게 반응한다(Smith & Pederson, 1998). 불안정 애착유아의 어머니와 비교할 때 애정 표현에 있어서 더 긍정적이고 덜 부정적이며, 자녀에 대해 더 많이 관여하고 잘 알고 있다(Pederson et al., 1990).

불안정 애착 유아의 어머니는 유아의 울음소리에 대해 반응이 적고,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도 적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부모의 격리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Del Carman, Pederson, Huffman, & Bryan, 1993). 어머니에 대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또래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공격적이며, 적대적 행위를 보이

는 경우가 많아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고립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La Freniere & Sroufe, 1985). 그리고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술이 미숙하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이 낮다고 한다(Karen, 1990). 뿐만 아니라, 유아와 양육자간의 불안정 애착은 이후의 사회, 정서적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 병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짐으로써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Main과 Solomoon(1990)이 새로운 애착 유형인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 유형을 제안한 이래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어머니의 부당한 양육행동이 애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 혹은 정서적인 무시 등을 계속적으로 경험한 영아들은 어머니와 비조직적이고 비일관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다(박응임, 1995 ; Aver & Allen, 1987 ; Carlson, Cicchetti, Barnett, & Braunwald, 1989 ; Egeland & Sroufe, 1981 ; Main & Solomon, 1990).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유아들은 다른 유아들에 비해 다루기 어렵고 쉽게 화를 냈으며, 무시당한 유아들은 더 수동적이고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더 무기력하고, 발달이 지체되었다(Main & Solomoon, 1990).

위와 같이 애착 안정성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이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즉각적인 반응성, 온건하고 적절한 수준의 자극 제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성, 어머니의 따뜻함과 반응성, 관여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어머니의 민감성과 모-아 애착

어머니 민감성이란, 양육자가 자녀의 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과 자발성(Ainsworth, 1978)을 의미한다. Lamb와 Esterbrooks(1992)는 어머니 민감성을 유아가 표현하는 신호와 필요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려는 경향성이라고 보았다. 어머니의 민감성은 부모와 자녀가 형성하는 애착의 질과 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자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가장 잘 예언하는 요인이 된다(전우경, 2003).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어머니가 잘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주며, 부정적인 상태를 효과적으로 조정해주는 보살핌을 일관성 있게 받는 유아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양육자를 안전한 품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 낯선 환경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안전기지로 가정하게 된다. 자녀의 신호에 대해 부모가 즉각적이고 일관성 있게 반응해주면 아이는 환경에 대해 통제감과 안정성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자신 있고 효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유아의 인지적 · 사회적 능력의 기초가 된다(Clarke-Stewart, 1973). 애착의 질은 양육자의 안전기지 역할에 근거한 유아의 행동 정도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와 양육자가 애착관계를 회복하는 상호작용의 효과로 살펴볼 수 있다(Seifer et al., 1996). 박응임(1998)은 어머니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자녀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자녀는 어머니에게 더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구미향(2000)은 애착 안정성은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민감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민감한 어머니일수록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독립심이 조장되고 수용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자녀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애착이론 연구자들은 자녀가 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

의 질은 자녀의 신호에 대해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자녀의 안정된 애착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 방식 특히, 민감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다. 부모의 민감성은 유아의 사회적 반응성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관계 발달의 기초를 제공한다. 영유아기 때의 민감한 부모양육은 자녀의 행동 조절 능력의 발달에 기초를 제공하고(Kopp, 198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Chase-Lansdale, Wakschlag & Brooks-Gunn, 1995). 반면에 어머니로부터 민감하지 못한 양육을 받으면 응시 철회, 웅크리기 등 어머니에 대해 회피 반응을 보인다(Bornstein, 1992).

유아의 신호에 대해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보내는 정서적, 행동적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한 후 적절하게 해석해서 반응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작용한다.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는 어머니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어 내기 위해 울거나 짜증을 부리는 행동 특성을 보임으로써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특성이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 Brazelton(1985)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정적 애착 관계 형성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애착의 질에는 유아의 기질이나 건강상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반응성,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결혼만족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지만, Anisworth(198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이 애착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결론이 제시될 정도로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특성 중에서 특히 민감성에 주목한다. 유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이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안정애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69). 어머니가 유아에게 민감하

게 반응했을 때 유아가 보내는 만족의 신호는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로서의 효능감과 조망수용능력의 기회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는 안정애착 형성에 기여한다(박은희, 2008). 특히 어머니의 민감성을 어머니와 유아가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이면서 중재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애착안정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의 유효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발달장애 유아와 부모

1) 발달장애 유아의 부모심리

대부분의 발달장애 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대인관계 형성 및 결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인 건강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직접 돌보는 부모의 양육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를 돌보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장애유아 어머니의 효율적인 대처 그리고 이를 통한 장애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장애유아 어머니의 내적인 자원인 심리적 자원의 공급이 절실히에도 불구하고 장애유아 부모 및 어머니를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혜영(2004)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유아의 양육의 책임과 건강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흔하며 그중 발달장애 유아의 여러 가지 문제는 유아와 가족의 적응을 저해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되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과정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응에 지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Wallander et al., 1989) 발달장애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로 한 연구가 많지 않다.

1970년대 이후부터 장애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부모 참여가 유아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성공에 결정적 요소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1990년대부터는 가족과 전문가간의 협력적인 동반자 의식이 모든 장애 중재 프로그램에서 최상의 실제로 인식되었다(조운정, 2001).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지지적 집단 치료가 장애유아 부모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며 그러한 변화가 장애유아와 부모와의 관계와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윤에스더, 2008). 최근 보고된 연구들에 따르면 발달장애 유아의 부모들을 지원하여 유아의 양육 환경을 변화시키면, 유아의 문제 증상들이 상당히 호전 또는 감소되고 사회성 발달과 모아애착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임숙빈, 1996; 오세란, 1996; Hanson & Hanline, 1990), 발달장애 유아에게서 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은 부모와 유아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장애유아의 어머니의 심리적인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비롯하여 주위사람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지지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본 프로그램의 활동 안에서 어머니는 유사한 조건의 다른 어머니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이 다른 어머니를 지지해 주기도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는 유아를 대하는 어머니의 민감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어머니의 민감성은 유아가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은실, 2007). 박은희(2008)의 연구에서도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의 민감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내용과 활동이 포함되어야 함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의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 모-아 간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적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발달장애 유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건강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지적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심리적인 건강문제로는 자녀의 문제행동, 모아상호작용, 사회성 및 대인관계 능력에 관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발달장애 유아에게 어머니는 중요한 지지자이며,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발달장애 유아의 건강과 문제행동, 태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정경순, 1994), 많은 전문가들은 발달장애 유아의 치료와 교육에 부모의 참여와 개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불필요한 정서적 부담감을 줄임으로써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관계를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영, 2004).

2) 발달장애 유아의 모-아 애착

발달장애 유아의 모-아 애착 연구에 의하면 일반유아들에 비해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들이 대부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이 밝혀졌다(윤수진, 2002). 이러한 불안정 애착유형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에 기초된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할 것이므로 정신 병리적 진단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 및 행동장애로 판별된 유아들의 잘못된 애착과 왜곡된 귀인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모-아 상호작용의 증진의 통하여 조기에 올바른 애착관계를 정립시켜 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 병리적 위험요소 또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 유아 중 특히 자폐유아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자폐성 유아와

일반 유아가 애착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애착이 자폐행동 및 언어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고 나타나있다. 따라서 모-아의 상호작용 증진은 자폐유아의 자폐행동 감소와 언어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박미진, 2004). 그리고 자폐유아의 어머니가 정상유아의 어머니에 비해 양적으로는 같은 수준이지만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의 결과는 자폐유아가 어머니에게 분명한 단서를 주지 못하고 덜 반응적이어서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강진호, 2002).

모-아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 행동이 나타나는 영아기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어머니와 자녀간의 초기 상호작용의 질은 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alhoun & Rose, 1989), 상호작용의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모의 민감한 반응은 애착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박은희, 2008).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히 행동하면 애착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어머니에게 자녀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Beal, 1986), 자녀의 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자녀의 애착 증진의 효과가 더 좋다고 보고되었다(Furr & Kirgis, 1982). Tomlinson(1989)의 연구에서도 언어적 표현을 잘하는 어머니 그룹에서 애착 점수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고, 아동의 행동을 모방하였더니 아동의 집중력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음악을 통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모-아 상호작용 활동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신지체와 전반적 발달장애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 어머니의 민감성이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환경적, 신체적, 발달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전반적 발달장애 집단도 다른 장애 집단과 동일한 경로로 애착안정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김은실, 2007). 또한, 유아의 발달연령에 따라서 모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만4세 미만의 집단과 만4세

이상의 집단의 애착안정성의 경로 간에는 서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발달 연령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 어머니의 민감성이 장애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연구결과이다(김은실, 2007). 즉 만4세 이후에는 모-아간 애착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 프로그램은 만3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신체접촉을 하는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이 자각에 잘 견디며 만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예민함이 감소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놀라워하는 어머니의 반응, 스스로 만세를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만져주는 것을 시원해하고 편안해하고 침을 덜 흘리고 밤에 쉽게 편한 잠이 든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연구(김현정, 2005)와 신체표현활동을 통해 모-아 애착행동, 동료와의 애착행동, 대인간 애착행동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정순주, 2001)에서도 나타났듯이 본 교육프로그램에서도 모-아의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과 악기와 음악을 사용한 청각, 시각, 촉각 등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신체표현 활동으로 그 효과를 더욱 더 기대할 수 있다.

3. 모-아 상호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유아를 위한 접근 중 음악을 사용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음악을 이용한 접근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음악이나 악기의 사용은 유아에게 매력적인 대상으로써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유아에게 비언어적 접근으로 쉽게 반응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Gutheil(1954)은 음악은 우리가 비언어(non-verbal) 혹은 전 언어(pre-verbal)라고 알고 있는 것들에 의한 의사소통이라고 하였으며(정성화, 2003 재인용), Racker(1951)는 음악은 구화언어(spoken language)나 객관적 표현 이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였다(정성화, 2003 재인용). 이와 같이 음악적 경험은 언어적 경험보다 선행되므로 원시적, 생리적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일상의 언어로는 형성할 수 없는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유아와의 접촉관계를 형성시켜준다(이영진, 1993). 또한 문제행동의 감소만이 아닌 음악적인 만족감은 유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커다란 안정감을 주고 현실에 대한 만족과 자신의 행동과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한다(지민정, 2007). 유아와 어머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의사소통의 통로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모-아간 관계의 본보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모-자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감정들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Alvin, 1975).

음악활동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어머니와 유아 모두에게 흥미로운 대상이 되므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어머니, 유아를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허용한다. 즉 공간에서 소리를 융합되면서도 어머니, 유아 각각은 서로에게 안전한 대상이 된다(Nolan, 1989; Winnicott, 1971). 음악연주는 모-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비언어적으로 나타내줌으로써 폐쇄적 형태의 언어나 대화에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을 막아주기도 하며, 모-자 간의 애정이 조율되고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재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준다(Nolan, 1989).

발달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적용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음악을 이용한 발달장애 유아 중재가 교사 혹은 장애가 있는 또래 유아, 일반 유아와의 사회적 놀이를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장혜원, 2002; 박은주, 2008) 보고되고 있다. 또한 통합된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음악활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음악활동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신체적 행동, 공동 관심적 행동, 언어적 행동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장혜원, 2002). 이것은 자유놀이 시간에 통합된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만4세 이하의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박은주, 2008)에서도 구조화된 소그룹 음악활동이 활동 전후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그룹 활동 중 또래 간 상호작용과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있다. 발달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실시한 국내 연구논문들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는데 임영옥(2005)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발달장애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 중심 중재 연구논문 26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 유아 중에서도 자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연령에 있어서도 영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는 주 대상 역시 교사 혹은 장애가 있는 또래로, 가족과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발달장애 유아에게 부족한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어머니와의 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래 부르기 및 악기연주 등의 음악활동이 상호작용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인령, 2001). 송인령(2001)은 반응성 애착장애 유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음악이 반응성 애착장애 유아의 반응을 수용하여 주고, 고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유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음악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한 결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향상은 물론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작용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이 교사 혹은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하여 본 음악활동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음악을 매개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모-아의 애착이 향상되었고(정성화, 2003),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이선영, 2005) 보고되

고 있다. 정성화(2003)는 자폐성 장애유아의 모-아 애착증진에 관한 연구에서 노래는 서로간의 벽을 허물어 주어 모-아간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극해 준다고 하였다. 또 음악은 효과적인 동기 유발제로서 음악의 긍정적 효과를 일관적으로 계속하여 지지할 경우 유아로 하여금 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선영(2005)은 반응성 애착장애 유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오디 음악활동이 육성을 통한 진행으로 모-아로 하여금 음악을 귀 기울여 듣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는 수업으로 유아의 반응을 중시하며 민감한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애착재 경험을 하는데 있어 모-아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오디 음악활동의 중요한 교수원리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부모와의 음악활동은 어머니와 유아가 음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 중요하다. 또 유아는 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놀이로서의 음악활동은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게 도와주어 자연스럽게 놀이 환경 속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기술이 증진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서 오디 음악활동을 실시한 결과, 활동 전과 비교해봤을 때 유아의 사회성 지수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자유놀이 및 음악 상황 안에서의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변화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Grant(1989)는 엄마와 유아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음악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여 엄마와 유아 사이의 다리역할을 해주고 신뢰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Gaston(1968)은 음악을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Sears(1968)는 '음악이란 그룹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경험이다.'라고 정의 내렸다(정성화, 2003 재인용). MacQuaarrie(2000)는 부모로서의 적응기술과 대처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모-아의 집단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부모가 치료에 참여하여 정보를 얻고 역할을 모델링하게 하였더니, 세션 과정뿐만 아니라 부모 상담에 적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증상과 스트레스를 줄이

고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어머니 모두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cDonnell(1984)은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유아가 소리와 리듬 등의 청각적 자극으로부터 보호와 안전의 느낌을 가지게 되며, 친근한 노래는 긍정적인 연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긴장을 해소해주며, 상처를 위한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래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부정적 감정, 저항 등의 불평등한 관계를 드러내 주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모-아 간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극해 준다고 하였다. Burkhardt-Mramor(1996)는 양육자가 여러 번 바뀌고 소외당한 아동을 대상으로 8개월간 음악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치료에 참여한 아동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고 능숙한 드럼 연주로 자존감이 향상되었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Main(1990)은 어머니와의 접촉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Jernberg & Booth, 2001 재인용).따라서 신체 접촉을 사용하여 안정애착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음악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음악적 경험 안에서 유아는 타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는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서로의 관점을 이해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은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유아와 어머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모-아간 관계의 본보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모-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감정들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Alvin, 1975).

음악치료는 특히 유아 및 아동들에게 더욱 적합하다. 실로폰, 벨과 같은 단

순한 악기들을 발견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동에게는 새롭고 즐거운 하나의 중립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청각적 자극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의 악기연주에서 초반에는 나란히 연주를 즐기지만 연주가 발전하면서 우연히 음악적으로 만나게 되어 이를 충분히 즐기다가 다시 분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듯 음악은 역동적으로 타인과 함께하는 기회를 증가시켜 모-아를 연결시키고, 자유로운 방식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공유하게 되며, 이로써 서로의 감정이 열리게 되고 이러한 감정적 경험을 상호간의 함께 함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개발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K 재활병원과 D 교회, D 어린이집에서 만3세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어머니와 유아를 모집하였다. 모집된 유아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경도와 중도 사이의 점수를 받은 발달장애 유아, 일반유아, 그의 어머니들 총 1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장애유아 실험집단 4쌍, 통제집단 4쌍, 일반유아 실험집단 4쌍, 통제집단 4쌍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였다.

1) 유아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장애유아 실험 · 통제집단이 남아 3명, 여아 1명으로 같았으며, 일반유아 실험집단 남아 3명, 여아 1명, 통제집단 남아 2명, 여아 2명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장애 · 일반유아의 두 집단 모두 35개월~40개월 2명, 40~45개월 2명이었다. 대상자의 출생순위는 장애유아의 실험 · 통제집단이 첫째 2명 둘째 2명으로 같았으며, 일반유아의 실험집단이 첫째 2명 둘째 2명, 통제집단이 첫째 3명 둘째 1명으로 만이(외동)가 많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의 경험은 일반유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각 1명씩을 제외하고는 교육 참여 경험이 없었다.

2) 대상자의 사회성숙도(SMS) 검사 내용

<표 1> 대상자 사회성숙도(SMS) 검사

		사회성숙도					
		장애유아			일반유아		
		CA	SA	SQ	CA	SA	SQ
실험	A	4.1	2.82	68.78	3.6	3.38	93.88
	B	4.1	2.14	52.19	4.1	3.81	92.92
	C	3.7	1.82	49.18	3.5	3.31	94.57
	D	3.9	2.50	64.10	4.1	3.75	91.46
통제	E	3.9	1.92	49.23	3.7	3.63	98.10
	F	3.7	2.50	67.56	3.6	3.44	95.55
	G	4.2	2.14	50.95	4.1	3.81	92.92
	H	4.1	2.32	56.58	4.1	3.94	96.09

*SQ에 따라 경도(mild) <SQ:55~75>, 중등도(moderate) <SQ:25~54>, 중도(severe) 및 최중도(profound) <SQ: 24이하>로 분류함.

3) 대상자 유아 부모의 특성

연구 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장애유아 어머니 실험집단 35세, 통제집단 37세, 일반유아 어머니 실험집단 35세, 통제집단 36세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장애유아 어머니 실험집단 고졸 3명 대졸 1명, 통제집단 고졸 1명 대졸 2명 대학원 1명이며, 일반유아 어머니 실험집단 고졸 1명 대졸 2명 대학원 1명, 통제집단 고졸 1명 대졸 3명이었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에 있어서는 장애유아 어머니 실험집단 모두가 300만원 이하였으며, 통제집단은 100~200만원 1가정, 200~300만원 1가정, 400만원 이상이 2가정이었다. 일반유아 어머니의 실험집단은 200~3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통제집단은 200~300만원 1가정, 300~400만원 2가정, 400만원 이상이 1가정이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의 경험은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실험집단에서 각 1명씩을 제외한 어머니 모두가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2. 측정도구

1) 선별검사

① 사회성숙도(SMS)검사 및 점수

유아의 사회성숙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 “사회성숙도 검사”(김승숙, 김옥기, 1995)가 있다. 이는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Doll, 1965)를 우리나라의 배경과 유아의 연령수준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는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검사의 신뢰도는 재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 평정자간 신뢰도가 .80-.90으로 검증되었으며, 검사의 타당도를 위한 자료로서 다른 지능 검사 또는 발달검사와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정상인을 대상으로 .30-.50정도, 장애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상관계수가 발견되었다(이은혜, 1995).

<표 2> 사회성숙도 검사 내용

영역	내용	문항
1. 자립능력(Self Help)	일반(14), 식사(12), 착의(13)	39
2. 이동능력(Locomotion)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이동하는 능력	10
3. 작업능력(Occupation)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대한 능력	22
4.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언어, 문자, 등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15
5. 자기관리능력(self-Direction)	자기행동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능력	14
6. 사회화능력(Socialization)	사회집단생활에 참가하는 능력	17
계		117

2)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① 유아의 애착 안정성

Waters와 Deane(1985)이 제작한 애착행동 Q-set(Attachment Behavior Q-set)의 개정판을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생활에서 영아가 보이는 다양한 애착행동을 기술하는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카드 분류 시에는 가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가 보이는 행동을 평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신뢰할 만한 관찰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Teti & MacGourty, 1996; Waters, Vaughn, Posada, & Kondn-Ikemura, 1995)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애착행동 Q-set를 분류하였다.

어머니는 가장 일치하는 10개의 문항을 9점으로 그리고 가장 그렇지 않은 문항을 1점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9점부터 1점까지 10개의 문항씩 분류한다. 애착안정성 점수는 어머니가 분류한 점수와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준거 점수간의 상관점수로 개별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Waters(1987)에 의해 보고된 미국 준거점수와 국내 준거점수 간의 상관은 .895($p < .001$)이다(나유미, 1996).

② 어머니 민감성

Pederson과 Morgan(1995)이 개발한 모성 행동 Q-set(Maternal Behavior Q-set : MBQ)를 구미향과 이양희(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을 묘사한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관찰자 또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행동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10개의 문항을 9점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행동과 가장 비슷하지 않은 10문항을 1점으로 하여 단계별로 9점부터 1점으로 각 10문항씩 분류한다. 이 90개의 문항은 영아가 어머니의 반응을 요구하는 신호나 상황을 어머니가 잘 파악하는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머니의 경향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머니의 양육방식, 어머니의 정서표현, 유아에 대한 주의, 상호작용방식, 의사소통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민감성 점수는 관찰자 또는 어머니가 분류한 점수와 준거점수와 상관관계를 통해 산출한다. 본 연구의 준거점수는 구미향과 이양희(1998)가 개발한 국내 준거점수를 활용하였다. Pederson과 Morgan(1995)에 보고된 미국 준거점수와 국내 준거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88($p < .01$)이었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험처치로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 형식을 채택하였다.

<표 3> 연구 설계 모형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장애유아	실험집단	O ₁	X	O ₂
	통제집단	O ₃		O ₄
일반유아	실험집단	O ₁	X	O ₂
	통제집단	O ₃		O ₄

X : 모-아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O₁ : 실험집단 사전검사

O₂ : 실험집단 사후검사

O₃ : 통제집단 사전검사

O₄ : 통제집단 사후검사

4.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개발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의 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 선별을 위해 대상자 및 그 어머니에 대한 일반적 특성, 사회성숙도(SMS)검사,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민감성에 관한 사전검사,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검사의 순서로 총 8주간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9년 3월 초부터 K 재활병원 입원아동, 외래아동 D 교회, D 어린이집에 대하여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머니와 유아를 모집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대상자 및 그 어머니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사회성숙도(SMS)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K 재활병원 음악치료실과 D 교회 유아실에서 한 회기에 약 40여분씩 일주일에 2 ~ 3회, 총 15회기에 걸쳐 본 연구의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어머니 민감성 점수와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애착준거점수와 분류점수와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어머니 민감성의 변화,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애착안정성 및 어머니 민감성의 집단별 사전·사후 차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쌍별 t-test를 실시하였다.

6.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내용

본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발달장애 유아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활동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아와 주 양육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교육을 지원하고 나아가 모-아 간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특수학교, 치료 센터 등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러한 음악경험을 통해 유아와 그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증진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N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유아와 그 어머니 4쌍을 대상으로 2명의 보조연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적용 결과를 근거하여 대상자 및 수준에 따라 활동을 수정 · 보완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이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민감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장애유아 뿐 아니라 일반 유아와 그 어머니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해봄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1) 측정도구 설정에 대한 근거

프로그램에 포함된 각각의 활동들은 유아들과 그 어머니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 심리적 문제나 부적응 행동 등에 초점을 맞춰 계획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행동이나 심리적 상태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진 치료 목적의 달성을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으로 하였다. 적절하고 타당한 활동 목적의 설정을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과 음악치료 적용의 사례 연

구조사 등의 과정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과거 발달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부모-유아 반응성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에 대한 김정미(2000)의 연구에서는 Mahoney(1999)가 'Family/Child Curriculum strategy'에서 '차례로 주고받기(turntaking)'기법 6문항, '균형 있는 상호작용하기(interactive match)'기법 8문항에 대해 3점 척도로 나누어 일상생활 중 상호작용 전략 사용에 대해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실시한 바 있었다. 금혜진(2004)의 발달장애 유아의 모-자간 상호작용 특성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유아의 모-자간 상호작용 특성과 모-자간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평가인 P-CIPA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Mash & Terdal(1991)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연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부모의 상호작용은 부모의 정서, 부모의 간섭, 부모의 칭찬, 부모의 관심, 부모의 발달적 민감성, 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 부모-자녀 참여의 7개 영역으로, 자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사회적 반응성, 활동에 대한 자녀의 관심, 자녀의 활동수준, 자녀의 공격성, 부모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성, 부모의 질문에 대한 반응성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측정된다. 모-아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모-아 상호작용 평가척도(Parent-Child Interaction: PCI)'로 Hetherington과 Clingempeel이 개발한 것을 문경주와 오경자(1995)가 번안하였으며 훈육행동 척도, 유아감찰 척도, 그리고 애정표현 척도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려했으나 본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목적과 하위영역은 알맞았으나 설문 문항들이 발달 장애 유아의 실정과는 맞지 않았다.

전영식(2007)은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장애유아의 애착 안정성 연구에서 Water와 Deane(1985)이 제작한 애착 Q-set(Attachment Q-set)의 개정판을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가 번안한 것으로 어머니와 장애 유아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Q-set은 가정이나 그 밖의 일상적 상황에서 보이는

유아의 행동을 설명하는 문항이 담긴 9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머니나 관찰자가 유아의 특성을 설명하는 문항이 적힌 카드를 읽고 자신의 영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로 Q-sort 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준미(2006) 역시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관련 변인 연구에서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Q-set을 사용하였는데 다른 점은 어머니 관련 변인 도구로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Pederson과 Moran(1998)이 개발한 모성행동 Q-set(Maternal Behavior Q-set: MBQ)을 구미향과 이양희(1998)가 우리나라의 양육환경과 모성행동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도구는 유아 양육방식,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유아의 행동에 대한 주의 및 상호작용방식, 의사소통 기술 등을 포함한 모성행동이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Q-set은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민감성을 측정하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2) 모-아 상호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계획되어지는 모-아 음악치료 프로그램들은 장애로 인한 사회성 문제와 관계 형성 문제의 해결과 증진에 목표를 둔다. 정상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어려운 유아에게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음악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음악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를 둔다.

언어적 기술이나 학습된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음악활동은 긍정적이고 일관된 지지를 경험하게 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시켜줌으로써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음악의 구조화된 소리는 감정을 자극하여 마음이나 신체 내의 조화를 가져다주어 내재된 음악아(music child)를 일깨워 근본적인 심신 치유의 작용을 한다(Nordoff & Robbins,

1985). 특히 집단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음악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감정을 표현하고 집단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서적인 지지와 수용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함께 하는 음악적 경험 안에서 장애 유아는 물론 그의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감정을 교류하고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양육자로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유아에게 긍정적이고 안정된 양육태도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아와의 안정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아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참여를 위해 Singing, Playing, Listening, Creating, Movement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음악적 활동들은 설정된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어 적용되어 지는데, 각 단계에서 적용되어지는 음악 치료 활동들은 모-아간 애착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증진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다. 주요 활동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래 부르기(Singing) 활동은 합창, 독창, 멜로디 모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특히 부모가 불러주는 자장가나 동요는 유아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유아와 긍정적 애착형성에도 효과적이다. 긴장이완(Relaxation)활동에는 모-아간의 신체접촉, 마사지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신체접촉을 통해 모-아간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제공해줌으로써 삶을 감성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 감상하기(Listening)활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청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음악 감상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연상을 통해 창의력이 향상시킬 수 있다. 유아 역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표상 능력이 향상되며 다양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악기 연주(Playing) 활동은 다양한 악기 연주를 통하여 청각적 풍요로움을 경험함과 동시에 모-아 간의 일체감

형성에도 도움을 주어 보다 깊은 교류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동료 간 교류 상황에서 악기 연주활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표현력, 상상력, 창작력,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동작활동(Moving)은 움직임 활동을 통해 유아는 소리와 리듬, 음색 등을 탐색하며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 또한 엄마의 청각적 피드백이 강화제의 역할을 담당하여 유아의 소근육 및 대근육 발달, 자세 균형, 움직임의 범위를 넓히고 근육을 강화하며 신체의 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조하기(Creating)활동은 음악을 만들고 창작하는 활동으로 창의적인 문제해결 기술력 및 내면의 경험을 외부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활동을 마친 후에는 모-아로 하여금 성공적인 경험을 느끼도록 해주어 자아존중감과 자기 조절력을 획득하고 활동 안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총 15회기가 구성되었다. 15회기의 프로그램은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음악 창작과 감상, 음악극, 음악과 동작 등의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지며 각 대상자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수준과 능력에 근거하여 전문 음악치료사에 의해 시행되어졌다. 각각의 회기는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활동을 제외하고 2개의 다양한 본 활동들로 이루어지므로 총 활동의 수는 30개의 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4> 모-아간 상호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조

	활동	시간
Hello song	시작하는 노래	5분
Activity 1 · 2	음악활동 1 · 2	30분
Good-bye song	마치는 노래	5분

3) 프로그램의 목적 및 하위목표

본 프로그램은 모-아가 음악활동 프로그램 안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동시에 불필요한 정서적 부담감을 줄이도록 하고 유아 역시 엄마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신뢰감을 통해 안전한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 정서적 · 인지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발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착표현, 의견존중, 강압, 일관적인 및 비일관적 지지, 독립적 행동의 다섯 가지 목적과 각각의 하위목표로 나누어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5> 음악치료 프로그램 목적 및 하위목표

회기	목적	하위목표
1		신체접촉을 통한 친밀감 향상
2	애정표현 증진	도구를 이용한 신체접촉 증진
3		표현력 향상
4		의견 수렴을 통한 협동심 증진
5	의견 존중 향상	의견 수렴을 통한 협동심 증진
6		의견 수렴을 통한 협동심 증진
7	강압 감소	올바른 감정표현능력 증진
8		부모의 민감성 향상
9	비일관적 행동	일관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10	감소	일관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11		독립심 증진
12	독립적 행동 증진	사회적 교류증진
13		성취감을 통한 독립심 증진
14		신뢰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분리 도모
15	마무리	상호작용 증진

첫째, 애정표현을 위한 음악활동에서는 악기 연주와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알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거나 바꾸는 수단이 되

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유아의 첫 번째 사회적 상호관계는 보통 엄마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유아에게 주어지는 엄마의 관심과 애착관계에 따라 유아의 타인에 대해 갖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에 음악활동 안에서 손 마사지, 안아주기, 손잡기, 눈 마주침, 손뼉 마주치기, 어깨 주무르기 등의 신체접촉을 통하여 유아와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고 자기 인식을 통하여 신체상에 대한 지각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음악 안에서 모-아 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통하여 유아의 사회 능력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서적 · 사회적 경험에 영향을 주도록 하였다. 노래 안에서 엄마와 유아가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욕구나 상태를 더 많이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엄마'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수용되고 지지받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모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 및 주변 사물에 대해서도 흥미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모-아 간의 의견존중을 위한 음악활동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함으로써 모-아가 사회 능력에 기본이 되는 정서 표출 규칙을 습득하는 통로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타인이 표현한 정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도록 하였다. 정서표현을 인식하는 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고, 상황적 단서에 따라 스스로 정서 표현의 형태와 강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정교화 되도록 하였다. 유아가 직접 결정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유아는 모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함은 물론 책임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밀착되어있던 유아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음악이라는 풍부한 청각적 자극과 안전한 환경 안에서 유아가 스스로 결정하고 여행을 떠나보는 등의 분리화 과정을 통하여 유아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음악활동 프로그램에서 강압은 부모가 유아를 대할 시, 부모라는 권위적인 지위를 사용하여 강압적인 훈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음악활동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스리고 표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모-아간의 정서적인 교감과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음악은 정서적인 영역에서 효과적인 도구로서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적 유연성과 영역을 제공하여 정서적, 심리적 장애물을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유아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강압적인 훈육보다는 유아의 요구나 불편함에 대한 신호들을 민감하게 읽을 수 있도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나 행동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나 행동을 함께 다루어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엄마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억압된 부정적 감정을 노래와 연주로 표출하게 하고, 이를 서로가 받아들이고 이해해보도록 하며 해결노래를 통해 다시 긍정적 감정의 교감을 느끼도록 해줄 수 있다.

넷째, 비 일관적 행동을 위한 음악활동은 부모가 유아를 교육할 시, 당시의 환경이나 감정의 영향을 받아 비 일관적으로 유아를 훈육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음악 활동 안에서 유아를 일관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게 함으로써 부모가 가장 안정적인 대상임을 인식하게 하여 유아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음악적으로 연출한 후, 엄마와 유아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생기는 양가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하고, 그 감정들을 올바르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엄마가 함께 해주며 지지해주고 또 지켜주고 안아줌으로써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안에서 엄마가 언제나 든든한 지지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독립적 행동을 위한 음악활동은 유아에게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활동에 책임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아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하

게 함은 물론, 부모와 안정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정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구조 안에서 유아는 엄마와 함께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해 보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제자리에 앉아서 친구를 맞이하는 유아도 마찬가지로 상호교류를 통하여 엄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리듬 모방하기, 멜로디 주고받기, 타인의 질문에 대답하기 등과 같이 음악활동 내에서 유아가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역할은 신체표현,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립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리더 되어보기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초반에 모-아의 관계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회기가 거듭될수록 유아가 독립된 존재로 동료 및 사회에 적응적으로 발달해가도록 점진적인 활동 구성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1, 2, 3 회기는 애정표현을 목적으로 신체접촉, 애정표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모-아 간의 친밀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 5, 6 회기는 의견존중을 목적으로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지지하도록 하여 올바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7, 8 회기는 강압으로, 엄마가 유아를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 모-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인격적인 존재임을 파악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친밀한 모-아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9, 10 회기는 비일관적 행동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엄마가 유아에게 올바른 애정표현을 함과 동시에 유아를 훈육하는데 있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1, 12, 13, 14회기는 독립적 행동을 목적으로 모-아 간의 건강한 애착관계를 토대로 엄마와 안정적으로 분리됨과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동료 및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5회기는 모든 활동의 마무리로써 모-아 및 동료와의 친밀감을 표현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도록 하였다.

7.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표 6> 모-아 상호작용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	목적	하위목표	활동내용	활동근거
1	애정 표현 증진	신체접촉을 통한 친밀감 향상	<엄마와 폴짝폴짝> - 손뽀치기 - 신체접촉 - 신체인식	안아주기, 안고 흔들기 등의 신체 접촉은 유아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하고 자신의 신체를 느끼게 함으로서 모-아 간에 애착 형성에 도움을 준다. 신체접촉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 자신감, 신뢰감을 경험하게 된다.
2		도구를 이용한 신체접촉 증진	<아기캐거루> - 손주머니 공넣기 - 별나라 여행하기	신체접촉은 심리적, 생리적으로 자극이 되어 대뇌피질에 자극으로 전달되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돕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촉진시켜 유아의 심신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3		표현력 향상	<예쁜종소리> - 엄마별 친구별 찾아가기 - 즉흥연주	다양한 악기를 엄마와 함께 선택하여 연주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노래에 따른 악기연주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회기	목적	하위목표	활동내용	활동근거
4	의견 존중 향상	의견 수렴을 통한 협동심 증진	<p><어디까지 올라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해서 손 쌓기 - 밴드 밀고 당기기 	<p>활동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함께 의논하게 함으로써 모-아 간의 생각을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그룹 전체가 모방해줌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수용되어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한다.</p>
5		의견 수렴을 통한 협동심 증진	<p><신나는 기차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차놀이 - 쿡쿡쿡 	<p>유아에게 스스로 악기를 선택하게 하고 동료들을 지도하도록 리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에 밀착되었던 모-아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 동료들 지지하여 협동심 및 타인을 도우려는 태도까지 발달하게 된다.</p>
6	의견 존중 향상	의견 수렴을 통한 표현력 증진	<p><동물원에 가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원에 놀러가기 - 동물표현 하기 	<p>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유아에게 다양한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하게 함으로써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억압된 감정들을 표출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회기	목적	하위목표	활동내용	활동근거
7	강압 감소	올바른 감정 표현 능력 증진	<p><내 마음을 알아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표현 하기 - 나무토막 쌓기 	<p>모-아 간에 생길 수 있는 부적 절한 감정들을 노래 안에서 표 현하게 하고, 하나가 되어 리듬 을 만들어 서로 주고받게 하며 함께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상호 간의 적절한 감정 표현 및 의사 소통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담 당한다.</p>
8		부모의 민감성 향상	<p><마음의 높이 맞춰봐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굴리기 - 곰과 공을 이용한 파라슈트 	<p>'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 안에 서 유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엄마로부터 알게 하고, 올 바른 훈육방법을 학습하는 계기 가 된다. 모-아 간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현명한 대처방법을 익히도록 한다.</p>
9	비일 관적 행동 감소	일관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p><우리 집에 초대할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꿍놀이 - 자연의 소리 탐색 	<p>'음악'이라는 자연스러운 메커니 즘 안에서 모-아가 과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 주고 존중해줌으 로써 서로가 지지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p>

회기	목적	하위목표	활동내용	활동근거
10	비일관적 행동 감소	일관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p><너는 소중한 아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아리 - 색종이 찢기 <p>특특히 비닐</p>	동작과 함께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노래와 활동은 모-아간의 동작을 서로 모방하고 일관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상호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유아의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준다.
11	독립적 행동 증진	독립심 증진	<p><고기잡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석으로 악기선택 - 동료의 북연주 인도하기 	유아가 제시한 북을 모두가 함께 연주해주면서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엄마가 믿고 유아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안정감 속에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12		사회적 교류증진	<p><꽃밭 나들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이 되어 나들이 - 음악쌓기 놀이 	동료들과 함께 합주하기, 합창하기, 지휘하기, 연상놀이, 즉흥연주 등을 통하여 모-아 관계 뿐 아니라 동료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등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회기	목적	하위목표	활동내용	활동근거
13	독립적 행동 증진	성취감을 통한 독립심 증진	<p><악기를 만들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 만들기 - 친구모방 하기 	<p>그룹 안에서 유아에게 리더의 역할을 주어 자신의 연주를 동료와 엄마가 모방하게 하고 인도하게 함으로써, 유아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감, 성취감, 만족감, 책임감을 느끼도록 도움을 준다.</p>
14		신뢰형성 을 통한 안정적인 분리 도모	<p><하늘높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콩뛰기 - 방송인 되어보기 	<p>'음악'이라는 풍부한 청각적 자극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분리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게 해주어 부모와 안정적으로 분리하도록 도움을 준다.</p>
15	마무리	상호작용 증진	<p><우리들의 멋진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주발표회 -최종마무리 	<p>모-아가 활동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지지받고 있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분리된 존재이며, 유아가 사회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모-아 간의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p>

IV. 결과

1. 결과 및 해석

1) 장애유아의 애착안정성 변화

연구문제 “1-1 장애유아 집단 중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를 받은 실험집단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 통제집단 점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아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장애유아의 애착안정성 증진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안정성 점수에 대한 t-test를 하고, 또, 집단별 사전 · 사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쌍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 장애유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애착안정성 비교

		애착안정성					<i>paired t</i>
		유아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사전 M(SD)	사후 M(SD)	
장애유아	실험집단	A	.243	.499	.25(.08)	.40(.09)	-4.375* (.022)
		B	.244	.386			
		C	.168	.297			
		D	.369	.471			
	통제집단	E	.198	.219	.27(.08)	.27(.07)	-.251 (.818)
		F	.218	.228			
		G	.381	.380			
		H	.283	.262			
		<i>t</i>			-.239 (.819)	2.289* (.062)	

* $p < .05$

사전검사의 경우 장애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점수에서 통제집단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같았으나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289, p<.05$). 또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통제집단 유아보다 애착안정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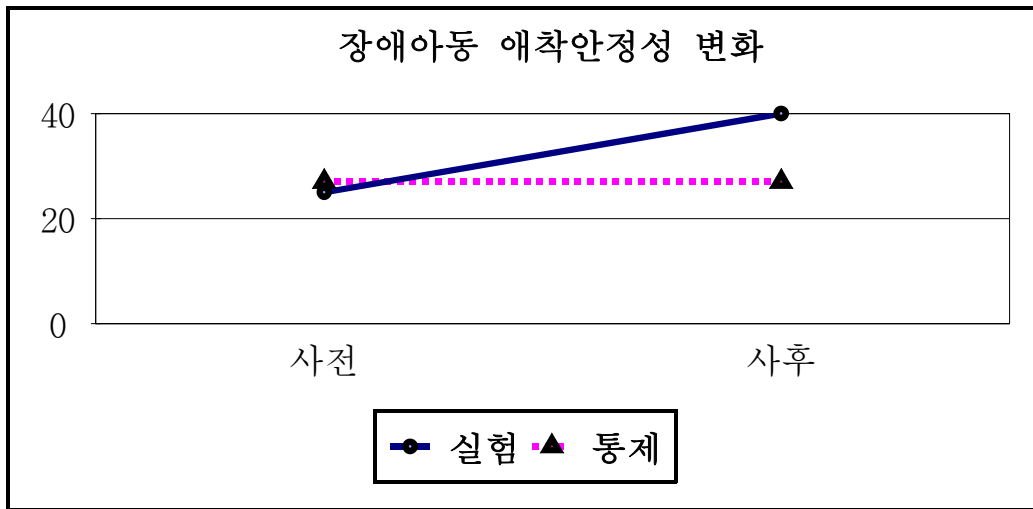
쌍별 t-test 결과 또한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 사후 검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375, p<.05$). 즉 실험집단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프로그램 실시에 의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모-아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유효한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장애유아의 애착안정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8>, <그림 1>과 같다.

<표 8> 장애유아 실험집단의 애착안정성 사전, 사후 검사

		M	SD
애착안정성	사전	.2560	.0833
	사후	.4087	.0933

<그림 1> 장애유아 애착안정성 변화



2) 일반 유아의 애착안정성 변화

연구문제 “1-2 일반유아 집단 중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를 받은 실험집단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 통제집단 점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아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일반 유아의 애착안정성 증진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안정성 점수에 대한 t-test를 하고, 또, 집단별 사전 · 사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쌍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9> 일반유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애착안정성 비교

		애착안정성					
	유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i>paired t</i>	
		점수	점수	M(SD)	M(SD)		
일반유아	실험집단	A	.458	.554	.45(.02)	.55(.01)	-16.406*** (.000)
		B	.479	.565			
		C	.450	.548			
		D	.421	.536			
	통제집단	E	.432	.423	.45(.03)	.45(.04)	-.285(.794)
		F	.458	.477			
		G	.490	.498			
		H	.422	.412			
		<i>t</i>		.077	4.540**		
				(.941)	(.004)		

p<.01, *p<.001

사전검사의 경우 일반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점수에서 통제집단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같았으나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540$, $p<.01$). 또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통제집단 유아보다 애착안정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쌍별 t-test 결과 또한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 사후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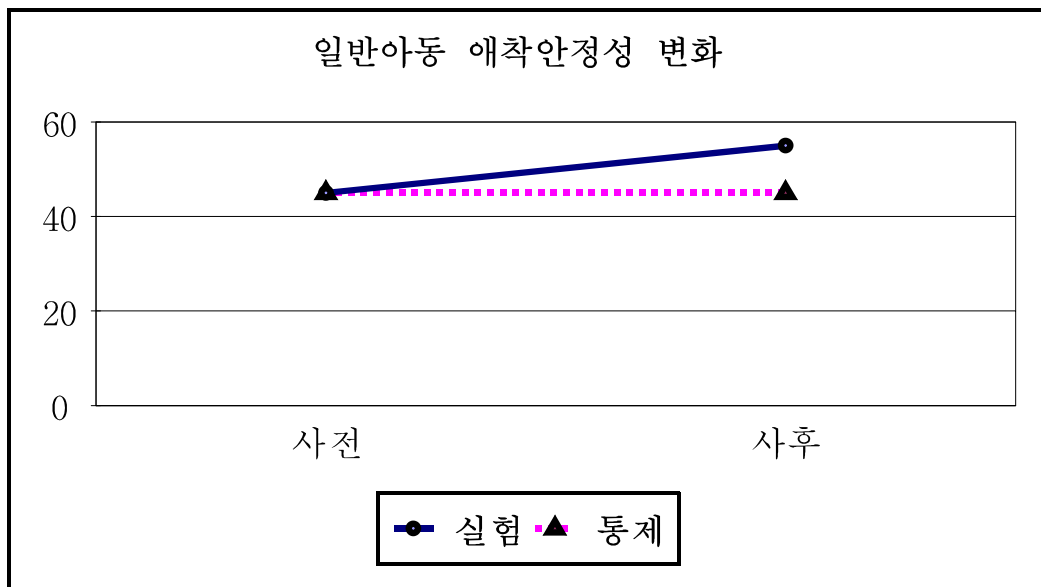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16.406, p<.001$). 즉 실험집단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프로그램 실시에 의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모-아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와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유효한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일반유아의 애착안정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0>, <그림 2>과 같다.

<표 10> 일반유아 실험집단의 애착안정성 사전, 사후 검사

		M	SD
애착안정성	사전	.4520	.0240
	사후	.5507	.0120

<그림 2> 일반유아 애착안정성 변화



사전검사의 경우 장애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사후점수에서 통제집단의 어머니 민감성 점수는 같았으나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795, p<.01$). 또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의 어머니가 통제집단 유아의 어머니보다 민감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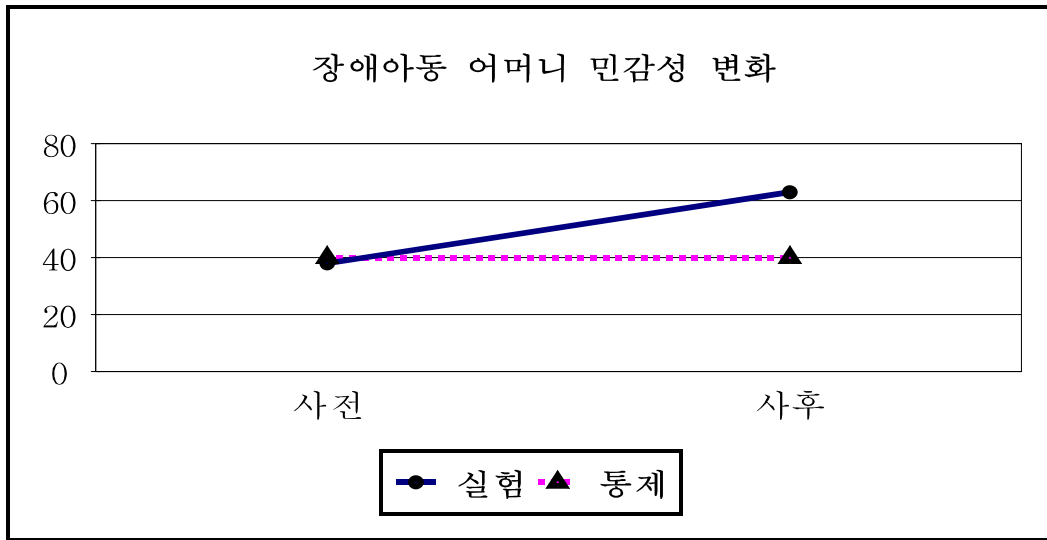
쌍별 t-test 결과 또한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 사후 검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12.555, p<.01$). 즉 실험집단 유아의 어머니 민감성 점수가 프로그램 실시에 의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아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실시가 어머니 민감성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장애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2>, <그림 3>과 같다.

<표 12> 장애유아 실험집단의 어머니 민감성 사전, 사후 검사

		M	SD
어머니 민감성	사전	.3797	.0813
	사후	.6347	.1159

<그림 3> 장애유아 어머니 민감성 변화



4) 일반유아의 어머니 민감성 변화

연구문제 “2-2 일반유아 집단 중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를 받은 실험집단의 어머니 민감성 점수와 통제 집단 점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아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일반유아의 어머니 민감성 증진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안정성 점수에 대한 t-test를 하고, 또, 집단별 사전 · 사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쌍별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3>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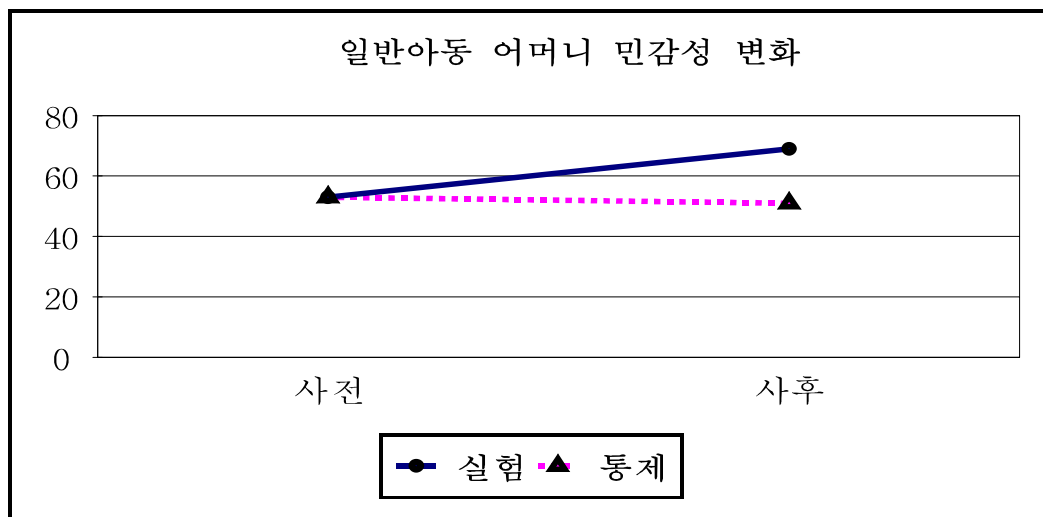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7.749, p<.01$). 즉 실험집단 유아의 어머니 민감성 점수가 프로그램 실시에 의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아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실시가 어머니 민감성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일반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4>, <그림 4>과 같다.

<표 14> 일반유아 실험집단의 어머니 민감성 사전, 사후 검사

		M	SD
어머니 민감성	사전	.5340	.0619
	사후	.6957	.0377

<그림 4> 일반유아 어머니 민감성 변화



2. 애착 안정성 및 어머니 민감성에 관한 내용분석

1) 장애유아 실험집단의 전반적인 행동변화

① A 유아

A 유아 어머니는 초반 음악활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보다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분주하게 하고 지시하는 등을 보였으며 자녀가 다른 악기를 가져가 보였으나 어머니는 반응 없이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와 활동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였다. 유아와 어머니는 각자 활동하며 상호작용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지속적인 어머니와 설명과 다그침에 아동은 반응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명령의 말투로 반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회기가 점차 진행되어 가면서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자녀를 재촉 없이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자녀 또한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는 어머니나 치료사가 이야기 하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물건에 집착을 보이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데로 행동하는 과격한 면이 많았으나 프로그램을 접한 후 어머니 및 치료사와 눈을 맞추려 하였으며 회기가 거듭될수록 좀 더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두드러진 것은 주로 명령조의 설명으로 아동을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자녀를 대함에 있어 유아의 반응을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였다.

② B 유아

B 유아의 경우 활동 초반 다소 경직되어 있었으며 항상 어머니가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유아는 어머니의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고 어머니의 상호교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악기 연주 시 어머니가 도와주려고 하자 유아가 어머니의 손을 치며 가지고 있던 악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자녀는 표정이 없고 어머니도 점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악기나 청각적 자극에 호기심을 보이곤 했으나 금방 싫증을 냈으며 어머니가 연주하거나 친구들이 연주할 시 고집을 부리고 얼굴을 찡그리는 등 ‘싫어’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곤 하였다. 활동 회기가 거듭될수록 활동 과정 안의 유아는 얼굴 표정이 가끔씩 밝아졌으며 노래도 어머니와 큰 소리로 부르며 함께 하는 활동의 참여 정도가 조금 늘었다. 어머니의 표정도 좀 따뜻해졌으며 자녀의 행동에 ‘옳지’라고 하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였다. 유아는 초반 주로 혼자 활동을 하려 했으며 어머니에게만 매달리고 어리광을 부렸고 매우 공격적이었으나 프로그램을 접한 후 친구들과 악기도 바꾸고 과격한 행동이 줄었으며, 어머니도 아동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며 아동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③ C 유아

C 유아의 경우 활동 초반에는 어머니와 유아의 활동에서 자녀의 활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모의 관심에 따른 주도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어머니는 활동을 이끌어 가려고 했으나 유아는 자신의 악기 연주에만 집중하는 듯 했으며,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드물었고, 어머니의 표정이 미소는 짓고 있었으나 긴장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녀

는 어머니의 명령어가 나올 때 마다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후반부로 갈수록 아동의 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나 주도하거나 유도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행동을 지켜봐 주는 어머니의 발달적 민감성이 보였으며 자녀의 행동에 손뼉을 마주치며 ‘잘했네’ 라고 하는 등 언어적, 신체적 칭찬과 격려가 많아졌다. 아동의 표정도 무척 신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와 유아와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에 안정감을 갖게 되었으며 자녀가 어머니와 더불어 놀고자 하며 귀찮아하는 행동도 줄었고 모-아 간의 놀이에서도 안정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악활동 안에서 어머니 또한 아동의 요구를 잘 들어주며 반응해주는 모습 또한 향상되었다.

④ D 유아

D 유아는 활동 초기 매우 위축되어 있었으며 치료사가 관심을 보였으나 매우 쑥스러워하며 수시로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악기 연주 시 어머니가 연주하는 방법을 미리 설명하여 주자 짜증을 부리기도 했으며 활동 도중 부모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유아는 전반적으로 치료사의 관심을 받기를 원했으나 관심을 가질 시 치료실에 누워버리거나 짓군은 장난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선택하지 못할 시 집어 던지거나 어머니 무릎위에 올라가 활동 참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이럴 때 마다 어머니는 어찌 할 바를 몰라 매우 난감해 하였으나 아이에게 별다른 개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유아는 활동에 흥미를 느끼면서 참여도 및 집중력이 조금씩 향상 되었으며 어머니에게 의존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신체접촉에서 초반에는 귀찮아하였으나 활동에 흥미가 생기면서 즐겁게 신체 접촉하는 모습을 보였

으며 어머니도 더욱 적극적으로 유아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는 초반 언제나 위축되어 활동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으나 치료사나 어머니가 시도하는 모든 일에 순응하면서도 언제나 얼굴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프로그램 회기가 거듭될수록 유아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으며 엄마와의 상호작용 중 웃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하였다.

이런 결과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유아의 공격성을 줄이며 어머니들의 아동에 관한 발달적 민감성과 활동에 대한 관심 및 부모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일반유아 실험집단의 전반적인 행동변화

① A 유아

A유아는 활동 초반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며 악기를 만지작거렸으나 어머니는 유아에게 ‘어떤 소리지?’라고 물으며 활동을 유도하였다. 아동이 선택한 악기에 관심을 보이며 귀 기울였으며, 활동 도중 유아가 동료와 다른 어머니 앞에서 과제를 수행하였을 시 불을 비비며 정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아이의 대답에 ‘그렇지’라고 반영적 경청을 해주기도 하였다. 후반부에는 자녀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 어머니의 모습을 즐거워보였다. 어머니도 명령보다는 자녀의 이해 수준에 맞게 이끌어 주었다. 이 유아는 잘 빠치고 수시로 우는 행동을 보이는 아동으로 어머니와의 신체접촉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도구를 남이 사용하기 싫어하는 점이 본 프로그램 진행 후, 어머니와 함께 안긴다는 점이 크게 달라졌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접근을 하려는 행동도 달라졌다.

② B 유아

B 유아는 수시로 어머니를 의식하여 큰 소리로 웃으며 관심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으나 어머니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크게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자녀에 대해 명령을 하거나 단호한 억양이 관찰되었고 자녀를 칭찬하는 모습은 일어나지 않았다. 치료사가 자녀에게 수시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도록 지도하면 가끔 머리를 쓰다듬어 준 후 굉장히 쑥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칭찬하는 모습이 익숙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활동 도중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크게 웃었으며, 마주 보거나 한 팀이 되어 악기를 연주하거나 게임을 인도 할 시 서로 도우며 함께 과제를 수행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칭찬을 받은 유아는 일부러 소리 내어 크게 웃는 등 부자연스러운 과잉행동을 보이긴 했으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칭찬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③ C 유아

C 유아의 경우 치료실에 입실하면 멋쩍어 하며 치료실을 빙빙 도는 모습을 수시로 보여다. 어머니는 자녀가 음악적 활동을 할 시 관심 있게 바라보며 고개 끄덕임 등으로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과제 수행 시 가끔 다소 냉소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으나 어머니의 행동과 목소리는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악기를 탐색하였으며 자신이 스스로 악기를 선택하거나 치료사와 동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도 엄마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훨씬 줄었으며 친구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자녀의 여전히 관심을 기울였으며 간접적으로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며 수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초반보다 유아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녀

의 발달수준에 적절하게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친구들 앞에서 주어진 연주를 했을 시 즉각적으로 지지해 주고 자녀를 안아주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자녀의 표정도 온화해지고 어머니와 자녀의 치료시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즐거워보였다. 수줍음이 많은 아동으로 눈을 맞추는 것이 힘들고 언제나 작은 소리로 입안에서 우물거리는 말이 들리지가 않았으나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서로의 눈을 맞추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 활동 안에서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 프로그램 회기가 거듭 될수록 입안에서 우물거렸던 말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후반부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눈을 맞추는 것이 달라졌다. 무슨 일이든 어머니에게 해달라고 졸랐으나 프로그램 후반에는 자신이 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활동력을 보였다.

④ D 유아

D 유아는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어머니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수시로 '엄마'를 부르며 찾으러 다녔다. 항상 어머니가 자신의 뒤에서 앉아있기를 원했으며 어머니가 항상 자신만을 바라봐주기를 원하였다. 악기 연주 및 동물흉내 내기 등 다양한 음악치료 활동을 매우 흥미로워 했으며 크게 웃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어머니를 수시로 의식하며 안전 기반으로 삼는 것에 대한 과잉애착을 보이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활동 도중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조금은 지쳐보였으나 아동과의 눈 마주침, 신체접촉, 유아의 의견 존중에 대한 치료사의 개입 시 자녀의 수준을 고려하며 맞추려고 애썼다. 후반부로 갈수록 유아는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보이면서 수시로 어머니를 의식하고 주시하는 행동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마지막에는 동료 및 다른 어머니와도 함께 짝을 지어 활동을 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수시로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임을 인식시키며 설명하였으며 아이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과제 수행 시 즉각적으로 칭찬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통제집단 어머니들이 보고한 사후 변화된 점들은 사전과 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공통점은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막연한 의지는 갖고 있으나 구체적 대안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위의 관찰을 통한 결과를 살펴볼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결과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에 유아의 눈 마주침과 신체접촉, 유아의 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 등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모-아간 상호작용을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가 유아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호작용 기술과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처치라 할 수 있겠다.

3. 논의

본 연구는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어머니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만3세 장애유아와 그의 어머니 8쌍 일반유아와 그의 어머니 8쌍, 총16쌍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유아와 일반유아를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와 어머니 민감성 점수의 변화와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장애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향상되었다. 장애유아의 애착 행동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유아의 점수가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일반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향상되었다. 일반유아의 애착 행동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유아의 점수가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장애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더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애착이 증진된 것은 음악치료 활동을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체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참여 어머니들이 유아에게 적절하게 과제를 제시하고 격려하며, 충분한 신체접촉을 통하여 편안함과 안정감을 유아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아는 어머니의 요구와 제안에 안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장애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가 향상되었다. 어머니 민감성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가 통제집단의 민감성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넷째,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일반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가 향상되었다. 어머니 민감성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가 통제집단의 민감성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장애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가 더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참여한 음악치료 과정에서 어머니는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중하며 자녀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는 연구(최순옥, 2005)와 연관성을 보여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아에게 음악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긍정적 음악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로 유아에게 부족한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음악을 사용한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 형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엄마와 유아가 하나가 되어 악기를 연주하고 서로의 차례를 기다려주고 지지해 줌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엄마’라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엄마와 상호교류하며 자율 감을 충분히 맛보도록 해주었을 뿐 아니라, 환경을 탐색하거나 지배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또래관계 뿐 아니라 대집단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렇듯 음악을 통한 모-아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애착안정성 뿐 아니라 유아와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사회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 유아의 가정은 장애로 인한 직접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 중에서도 유아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관계형성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유아의 개별 참여에만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필요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애착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증진시키는 모-아 음악활동의 시행은 유아의 결손된 기술이나 능력을 보완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물론 유아의 어머니가 겪고 있는 심리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동시에 감소시켜주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해주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민감성이 유아의 안정 애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론적 기초를 기반으로 조기개입과 예방의 차원에서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머니의 민감성과 유아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적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장애유아 집단과 일반유아 집단 모두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이 증가함으로써 유아의 애착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이 검증되었다.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장애유아가 애착안정성 점수가 더 향상되었다.

또한, 모-아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장애유아 집단과 일반유아 집단 모두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신호와 욕구를 신속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등 어머니의 민감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입증되었다.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장애유아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가 더 향상되었다. 나아가 모-아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내용과 활동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애착 형성 기인 유아와 그 어머니에게 적용하여 어머니의 민감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모-아 관계에 건강한 애착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모-아가 올바른 상호작

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어머니와 유아간의 안정애착 형성과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장애유아와 어머니, 일반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결과는 음악치료가 유아에 대한 치료적 접근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개입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 모-아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민감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모-아간 올바른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간단한 음악 기술과 악기만으로도 충분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음악과 함께 미술이나 동작 등 관련 예술 매체가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유아와 그 어머니를 위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응용되어 적용함으로써 전체 가족의 관계 형성과 애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비음악적 기술 즉, 인지적 · 정서적 · 운동적 기술 등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엄마가 쳐 주는 박자를 들으며 리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노래의 특정 부분에서 리듬악기를 연주하도록 함으로써 감상기술, 청각적 식별력,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일정한 형식을 이해할 수 있는 조직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음악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잘 활용하여 유아가 발달과정 중에 통합적인 발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모-아가 음악치료 프로그램 안에서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아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비교적 참여의 기회가 많은 전업주부와 그 자녀가 실시대상의 주를 이루었다. 향후 프로그램 효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 후속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다양한 집단의 어머니와 유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유아와 어머니였기 때문에 참여집단이 어머니들의 참여가능 시기와 본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구성되었다.

위의 한계점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 배정을 통해 연구방법 상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케이스의 표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 형성이 다르므로 집단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별적 접근도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유아 및 어머니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애착 형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초기면담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문희. (2007). 현대사회와 유아(심리학적 이해), 서울: 시그마 플러스.
- 강진호(2002). 자폐유아의 애착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훈철, 김홍동(2002). 유·소아 발달과 발달장애. 인제의학지, 23(3), 131-156.
- 구미향, 이양희(1998), 모성행동 Q-set의 국내준거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1), 129-139.
- 구본권(1990). 지체장애유아교육, 서울: 시그마플러스(주)
- 국립특수교육원(2005) 특수교육 진흥법, 법률 제7395호 <http://www.kise.go.kr/>
- 권인수, 김미애, 김은경, 김태임, 문진하, 송인숙, 신순식, 심미경, 안영미, 이수연, 정승은, 조갑출, 최미혜 (2003). 임상유아간호학. 서울: 수문사.
- 권혜련(2004). 유아중심의 감각통합치료가 전반적 발달장애 유아의 운동발달 및 감각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금혜진(2004). 발달장애유아의 모-자간 상호작용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실(2007).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심리상태, 어머니의 민감성과 장애유아의 애착안정성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국 · 김옥기(1991). 사회성숙도 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정미(2000). 부모-유아 반응성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정(2005). 발달지체유아 애착증진을 위한 어머니 교육프로그램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영(2004). 어머니 교육을 통한 발달장애 유아 건강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문경주, 오경자(1995).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부적응간의 관계: 모-자 상호 행동관찰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41-55.
- 박경자(1999).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유아학회지, 20(3), 1-15.
- 박미진(2004). 자폐성 유아의 애착과 자폐행동 및 언어능력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영(1994). 음악치료의 구조와 치료실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박승희(1997). 장애유아 재택 탁아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18(2) p67-78
- 박아청(2003). 유아의 애착과 자기이해 발달에 대한 일 고찰. 유아교육, 12(2), 19-33.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은주(2008). 그룹 음악활동을 통한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희(2008). 어머니의 민감성 향상을 위한 모아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영아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향연(2005). 모-아 애착이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혜숙(2003). 중 다 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과 성차. 영유아교육 연구, 6, 23-39.
- 송인령(2001). 음악활동이 반응성 애착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지은(2007). 그룹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교육학술지, 4(1), 2-20.
- 예서현(2004). 의사소통 훈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효능감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세란(1997). 발달장애 유아 부모의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수진(2002).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의 애착측정.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에스더(2008).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노래 만들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영(2005). 오디 음악 활동을 통한 반응성 애착장애 유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 증진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한국유아학회, 18(2), 1-18.
- 이영진(1993). 자폐유아를 위한 음악프로그램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자형, 하영수, 김일옥, 김혜영, 박영애, 오진아, 이정은, 정은영(2004). 유아간호학 II, 서울: 신광출판사.
- 이정희(1999). 자아정체감과 진로미결정 문제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화(2005). 걸음마기 유아의 부모-자녀 관계 평가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가족복지학*, 10(2), 61-78.
- 이준미(2006).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관련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숙빈(1996). 전반적 발달장애 유아를 위한 모아애착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영옥(2005). 발달장애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중심 중재 연구 현황 및 향후 방향. *언어치료 연구*, 14(3), 197-227.
- 임용택(2003). 접촉치료 놀이 활동이 자폐성 장애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휘숙(2001). 애착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05-119.
- 장혜원(2002). 음악활동이 통합된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미혜, 이한우 (2001). 가정지원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1), 171-192.
- 전영식(2007).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장애유아의 애착 안정성.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우경(2002).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경순(1994). 성인교육으로서의 장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순주(2001). 신체표현활동들 통한 자폐증 유아의 대인간 애착행동 증진효과,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현주 외 공저. (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조윤정(2001). 발달장애 부모 가족지원, 발달장애 교육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1차 workshop.
- 조희숙 · 최인숙 · 김경중. (1994). 유아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지민정(2007). 발달장애 유아에서 음악활동을 통한 사회인지 및 행동 발달 개선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경숙(2006). 유아발달심리, 서울: 교문사.
- 최병철(1999).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 최수연(2003). 영재유아와 일반유아간의 놀이성과 사회성숙도에 대한 차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ice-Ann Darrow. (2006). 음악치료접근법, 서울: 학지사.
- Alvin, J. (1975). Music in healing Music therapy, New-York: Basi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1994
- Ainsworth, M. D. (1972). Attachment and dependency. A comparison. In J. L. Gewirts(Ed.). *Attachment and Dependency* (p 97-137). Washington, DC: Winston & Sons.
- Ainsworth, M. D., Bleher, M C., Waters, E., & Wi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 Sroufe, (1979). Attachment as related to mother-infant interactions. In J. Resenblatt, R. Hinde, C. Beer, & M. Bushen, (Eds.), *Advances in the study of mother-infant: Vol. 9*, pp 1~5). New York : Academic Press.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Barnett, B., Blignault., Holmer, S., Payne, A., & Parker, G \. (1987). Quality of attachment in a sample of 1-year-old Australian

chilésc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303–307.

- Banard, K, E. (1978). The Nursing Child Satellite Training Series.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Learning Resource Manual, 3–15.
- Beal, J. A. (1991). Methodological issues in conducting research on parent–infant attachmen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1), 11–15.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azelton, T. B. (1985). Working and caring. New York : Basic Books.
- Burkhardt–Mramor, K. M. (1996). Music therapy and attachment disorder. *Music Therapy Perspectives*. 14, 77–82.
- Calhoun, M. L., & Rose, T. L (1989). Promoting positive parent–child interaction.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summer, 44–45.
- Clarke– Stewart, K. A. (1973).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their young children :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53, 38(6–7), 1–108.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derson, J. L. (1996). Perent’s attachment history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unseling an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behaviou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28-249.
- Del Carmen, R., Pederson, F., Huffman, L.,& Bryan, Y. (1993). Dyadic distress management predicts security of attach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6, 131-147.
- Egeland, B. & Farber, E. A.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Egeland, B. & Sroufe, A. (1981). Attachment and early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52, 44-52.
- Fagot, B. I. (1997). Attachment, Parenting, and Peer Interactions of Toddle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3), 489-499.
- Fearon, R. M. P. & Belsky, J. (2004). Attachment and attention: Protection in relation to gender and cumulative social-contextual adversity. *Child Development*, 75(6), 1677-1693.
- Frank L. Summers. (2004).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 Furr, P. & Kirgis, C. A. (1982). A nurse-midwifery approach to early mother-infant acquaintance. *Journal of Nurse-Midwifery*. 27(4), 10-14
-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ardner, H. (1982). *Developmental psychology*.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Grant, R. E. (1989). Music therapy guidelines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Music Therapy Perspectives*, 6, 18-22.
- Greenberg, M. T., Speltz, M. L., De Klyen, M, & Endringa, M. C. (1991) Attachment security in preschools with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 A replic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13-430.
- Grossmann, K. E., & Grossmann, K.(1982). *Maternal sensitivity to infant signals during the first year as related to the year old's behavior in Ainsworth's strange situation in a sample of Northern German families*.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Austin, TX.
- Goldberg, S. (1991). Recent developme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6, 393-400
- Honig, A. S (1981). Recent infancy research. In Weissbourd, B. & Music, J. S. (Ed.). *Infant Their Social Environments*. ERIC. Washington, D. C.
- Hanson, M., & Hanline, O. (1990). Parenting a child with a disability.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al stress and adapta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4(3), 234-248.
- Jacobsen, T. & Hormann, V. (1997).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s: Longitudinal Relations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703-710.
- Jernberg, A. M., & Booth, P. B. (2001). 테라플레이 놀이치료(김태련, 박량규, 윤진영 역.). 서울: 학지사.
- Karen, R. (1990). Becoming attached. *The Atlantic Monthly*, Vol. 2. New York : Warner

- Kenneth E. Bruscia 편저. (2006). 음악심리치료의 역동성, 서울: 학지사.
- Kopp, C.(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olhnen, E. C. & John, O. P. (1998).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 theory-based prototype approach.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 *Attachment theory and close and relationships*. (pp. 115-140). New York: Guilford Press.
- Lamb, M., Ketterliness, R. D., & Fracasso, M. P. (1992).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Bornstein, M. H., & Lamb, M. E., (Ed),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3rd Eds.), Lawrence Associate, Hillsdale, N, J.
- La Freniere, P., & Sroufe, L.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Maslin, C, A., & Bates, J, E. (1983). *Procedures of anxious and secure attachments : A multivariate model at age 6 month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 121-16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hy, A., & MacQuaarrie, J. (2000). Theraplay: Innovations in Attachment-Enhancing Play Therapy. In E. Munns(Ed).

- Thetaplay and Parent Counselling(pp79-93). New jersey: Jason Aronson Inc.
- McDonnell, L. (1984). Music Therapy with traum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a pediatric service. *Music Therapy*. 4(1), 55-63.
- Moss, E. & St-laurent, D. (2001). Attachment at school age and academic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7(6), 863-874.
- Nolan, P. (1989). Music as a transitional object in the treatment of bulimia. *Music Therapy Perspectives*, 6, 49-51.
- Nordoff, P & Robbins, C (1985), *Therapy in Music for Handicapped children*. London: Victor Gollancz LTD.
- O'Connor, M. (1997). *Matern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the MMPI and infant attach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Belsky(1999)에서 재인용.
- Pederson, D. R., Gleason, K. E., Moran, G., & Bento. S. (1998).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34(5), 925-933.
- Pederson, D. R., & Ma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Rita Wicks-Nelson & Allen C. Israel (1990). 유아기 행동장애(정명숙 외 공역), 서울: 시그마플러스(주).
- Sheldon Cashdan. (2005). 대상관계치료, 서울: 학지사.
- Smith, P, B., & Pederson, D, R. (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 Seifert, K. L., & Hoffnung, R. J. (2000).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5th e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 Seifer, R., Schiller, M., Sameroff, A., Resnick, S., & Riordan, K. (1996). Attachment,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temperament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2-25.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Permuter, M (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Vol.16 Hillsdale, NJ: Erlbaum, 41-81.
- Teti, D. M., & MacGourty, S. (1996). Using mothers versus trained observers in assessing children's secure base behavi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Child Development*, 67, 597-605.
- Wallander, J. L., Verni, J. W., Baban, L., Banis, H. T. & Wilcox, K. T. (1989). Family resources as resistance factors for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chronically ill and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4, 157-173.
- Wakschlag, L. S., & Hans, S. L., (1999). Relation of maternal responsiveness during infancy to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in high-risk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569-579.
- Wartner, M. J., Grossman, K., Fremmer-Bombik, E., & Suess, G. (1994). Attachment patterns at age six in South Germany; Predictability from infancy and implications for pre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1014-1027.

Winnicott, D. W. (1971). *Playing and reality*.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

ABSTRACT

The study of enhancing the interaction between a Mother-Child through Music therapy by observing the infant's attachment stability and the mother's sensitivity.
: result demonstrative research.

Dong-mi, Seo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verify if the music therapy program that was developed for the improvement of mother-child interaction had influence on an infant's security of attachment and maternal sensitiveness. This music therapy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mother-child interaction was made to help recover a healthy mother-child attachment relationship and to improve correct mother-child

interaction by improving maternal sensitiveness in mothers which minimizes factors with negative influence on children's growth in their attachment formative perio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6 pairs; 3 year old normal infants and infa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mothers. They were divided into a test group of 4 pair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and a control group of 4 pairs, and a test group of 4 pairs of normal infants and a control group of 4 pairs. The testing of this program was carried out 15 times, 2~3 times a week, each session being approximately 40 minute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ogram, a Q-set for attachment behavior and a Q-set for maternal behavior were used as a measuring tool to measure the infants' security of attachment and maternal sensitiveness.

Data management was done using the SPSS Win 12.0 Statistics Program to calculate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the test subjects' social demography background and it was also used to calculate a standard number, a division number and a correlation coefficient to measure the infants' security of attachment and the mother's sensitiveness. A t-test was taken to find changes in the security of attachment and the mothers' sensitiveness of the test subjects, and another t-test was taken for each pair to find changes per group before and after the tes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the following.

First, the security of attachment numbers in infants with disabilities have improved after the music therapy for improvement in mother-child interaction. The numbers of the test group infants were much higher

than the numbers of the control group in the post-examination for attachment behavior.

Secondly, the security of attachment numbers in normal infants has improved after the music therapy for improvement in mother-child interaction. The numbers in the test group infants were much higher than the numbers in the control group in the post-examination for attachment behavior.

Thirdly, the maternal sensitiveness numbers of mother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s improved. The sensitiveness numbers in the test group mothers were much higher than the sensitiveness numbers in the control group mothers in the post-examination for maternal sensitiveness.

Lastly, the maternal sensitiveness numbers of mothers' with normal children has improved. The sensitiveness numbers in the test group mothers were much higher than the sensitiveness numbers in the control group mothers in the post-examination for maternal sensitiveness.

After making a music therapy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analyzing its influence and its applied effect on infants' security of attachment and maternal sensitiveness , it was verified that the music therapy program improves maternal sensitiveness and helps build a healthy attachment relationship and it improves correct mother-child interaction.

부 록

<부 록 1> 활동참여 동의서 및 일반적 특성 설문지

<부 록 2> 애착안정성 Q-set

<부 록 3> 모성행동 Q-set

<부 록 4> 음악치료 프로그램

<부록 1>

<활동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서동미 입니다.

본 연구는 유아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연구 참여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될 것이며, 어떤 보고서에도 귀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에 의해 귀하가 경험하게 될 위험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 참여는 앞으로 한국 발달장애 유아와 부모의 삶의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 (또는 법적 대리인) 성 명 : _____

일자 : 2009. 03. 서 명 : _____

<일반적 특성>

* 다음 질문을 유아와 부모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기입하거나 O표로 표시해 주세요.

1. 유아명 :

2. 성별 : (남 / 여)

3. 유아 생년월일 : 20____년 ____월생 (만 ____개월)

4. 출생순위 : _____남 _____녀 중 _____째

5. 과거에 유아-어머니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① 있다 (회기 : _____회) ② 없다

6. 어머니 연령 : _____세 (만 _____세)

7. 어머니 최종학력 : ①고졸 ②대졸 ③대학원졸

8. 귀하의 가정에 월 평균 총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200만원 ② 200~300만원 ③ 300~400만원 ④ 400만 원 이상

9. 과거에 유아-어머니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수강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① 있다 (회기 : _____회) ② 없다

<모성 행동 Q-set>

*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9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8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7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6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5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4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3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2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1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애착 안정성 Q-set>

- 9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8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7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6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5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4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3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2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1점(10개) :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___번

<애착안정성 Q-set>

<p>1. 엄마가 요구하면, 선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교사에게 나눠 주거나 만져 볼 수 있게 한다. 반대:거절한다.</p>	<p>2. 놀다가 엄마에게로 달려와 때로는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곤 한다. 반대: 놀이 중 또는 놀이 후 교사에게 돌아와 행복해 하거나 애정 어린 표정을 짓는다.</p>
<p>3. 당황하거나 다쳤을 때, 엄마가 아닌 다른 어른의 위로로 달래진다. 반대:엄마가 아이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p>	<p>4. 장난감과 애완동물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대한다.</p>
<p>5. 사물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 반대: 사람보다 사물에 더 관심이 있다.</p>	<p>6. 아이가 엄마 곁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물건을 보면 칭얼거리거나 엄마를 억지로 그 물건이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간다. 반대:혼자 갖으려 간다</p>
<p>7. 다른 사람에게 쉽게 미소 짓거나 웃는다. 반대: 다른 사람들보다 교사에게 더 쉽게 미소 짓거나 웃는다.</p>	<p>8. 울 때면 심하게 운다. 반대:눈물을 흘리거나 흘쩍거리고 울지 않고 혹은 심한 울음이라도 오래가지 않는다.</p>
<p>9. 하루 중 대부분을 즐겁게 논다. 반대:하루 중 슬프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p>	<p>10. 어머니가 낮잠을 재우거나, 저녁에 재우려고 하면 자주 울거나 싫다고 저항한다.</p>
<p>11.엄마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주 엄마를 꼭 껴안는다. 반대:엄마가 먼저 아이를 껴안아 달라고 할 경우에만 껴안는다.</p>	<p>12.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했던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빨리 친숙해진다. 만약,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중간 점수</p>

<p>13.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에 대해 한번 화가 나면 어머니가 간 후에도 계속해서 울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p>	<p>14. 새로운 장난감을 찾았을 시, 아이는 엄마에게 그것을 가져오거나 멀리서부터 그것을 보여준다. 반대: 새 장난감을 가지고 조용히 놀거나 방해 받지 않을 곳으로 간다.</p>
<p>15. 교사가 요구하면 기꺼이 낯선 사람과 말을 하고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p>	<p>16. 살아있는 것을 본 따서 만든 장난감을 좋아한다. (예, 인형, 천으로 된 동물)</p>
<p>17. 낯선 사람이 아이를 당황하게 만들면 그 사람에게 가졌던 관심이 쉽게 없어진다.</p>	<p>18. 교사가 명령하지 않고 단순히 제안하는 경우에도 교사 말에 잘 따른다. 반대: 명령하기 전에는 무시하거나 거절한다.</p>
<p>19. 교사가 어떤 물건을 가져오게 하거나 달라고 할 때 교사 말을 잘 듣는다. 반대: 물건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가 가져온다.</p>	<p>20. 웬만큼 부딪치거나, 떨어지거나, 놀라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 반대: 약간만 부딪치거나, 떨어지거나, 놀라도 운다.</p>
<p>21.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어머니의 위치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며 수시로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주시한다.</p>	<p>22. 인형, 애완동물, 어린 아기에 대해 애정 가득한 교사처럼 행동한다. 반대: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논다. 중간점수: 같이 놀 인형, 애완동물, 어린아이가 없거나 같이 놀지 않을 경우</p>

<p>23. 어머니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거나 그들과 다정하게 있을 때 어머니의 관심이 자기에게 향하도록 애쓴다.</p>	<p>24.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하거나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면, 어머니를 화나게 한 것에 대해 당황해 한다거나,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단순히 언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황해 한다거나, 혹은 야단 맞을까봐 불안해한다면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p>
<p>25.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고 있을 때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머니가 알기 어렵다. 반대: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말을 하거나 부른다. 찾기가 쉽다. 즉 아이가 무엇을 하고 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어머니 시야에서 놀면 중간.</p>	<p>26. 어머니가 다른 양육자(아이 돌보는 사람, 아버지, 조부모 등)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가면 아이는 운다. 반대: 어느 누구하고 있어도 울지 않는다.</p>
<p>27. 어머니가 장난을 치면 웃는다. 반대: 어머니가 장난을 치면 화낸다. 어머니가 놀이나 대화 도중에 아이와 절대로 장난치지 않으면 중간.</p>	<p>28. 어머니 무릎에서 쉬기를 좋아한다. 반대 : 마루나 가구 위에서 쉬는 것을 좋아한다.</p>
<p>29. 때때로 어떤 일에 몰두하여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못한다. 반대: 어떤 일에 몰두를 하다가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걸면 사람을 쳐다본다.</p>	<p>30.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자주 화를 낸다.</p>
<p>31. 자신이 어머니의 주 관심대상이 되고자 한다. 어머니가 바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방해한다. 반대: 자신이 어머니의 주 관심이 아니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p>	<p>32.엄마가 “안 돼” 라고 말하거나 야단칠 때 잘못된 행동을 그만둔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두 번씩 이야기 하게 하지 않는다.</p>

<p>33. 안아줄 때 때때로 내리고 싶다는 신호를 어머니에게 보낸 다음(또는 그런 것 같은 이상을 준 후) 칭얼거리거나 곧 다시 안아주기를 원한다. 반대: 아이가 내리고자 하는 신호를 하여 내려놓으면 곧바로 잘นอน다.</p>	<p>34. 어머니가 자기를 주고 가는 것에 화가 나면 자기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운다. 반대: 화가 나거나 울 때는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간다.</p>
<p>35. 엄마로부터 독립적이다.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놀고 싶어 할 때는 쉽게 엄마와 떨어진다.</p>	<p>36. 엄마를 심리적으로 안전기저로 삼아 주변을 탐색한다. 반대:부르기 전에는 항상 떨어져 있거나, 항상 교사 곁에 있다.</p>
<p>37. 상당히 활동적이다. 항상 돌아다닌다. 조용한 놀이보다는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한다.</p>	<p>38. 엄마를 조르며 참을성이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 해주지 않으면 해 줄 때까지 계속 안달하고 해달라고 고집을 부린다.</p>
<p>39. 교사로부터 떨어져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딱딱하고 진지한 표정을 자주 짓는다. 반대:교사로부터 떨어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자주 웃거나 우스운 행동을 한다.</p>	<p>40.새로운 물건이나 장난감을 자세히 살펴본다.(그것을 분리해보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보려고 애쓴다.) 반대:새로운 물건이나 장난감을 쳐다보는 기간이 짧다.</p>
<p>41.교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교사가 아니라 장난이나 게임처럼 거절할 때는 불복종으로 보지 않는다.)</p>	<p>42. 교사가 화를 내면 그것을 안다. 교사가 화난 것을 알고 조용해지거나 당황해한다. 반대:교사가 화가 난 것을 알지 못한다.</p>
<p>43. 교사 곁에 가까이 가거나 교사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사에게 간다. 낮은 점수: 교사가 어디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p>	<p>44. 교사가 안아주고 껴안아 주기를 요구하며 그것을 좋아한다. 반대: 특별히 이와 같은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 껴안아 주거나 안아주면 가만히 있기는 하나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p>

<p>45. 음악에 맞추어 춤추거나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반대: 음악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p>	<p>46. 걸거나 뛰어다니면서, 부딪치고, 떨어뜨리고, 발부리에 걸리지 않고 잘 걷고 뛴다. 반대: 상처가 날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루 중 떨어지고 발부리에 걸리는 경우가 생긴다.</p>
<p>47. 어머니가 웃으면서 재미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면, 놀이 중간에 큰 소리가 나거나 격하게 흔들어 주어도 가만히 있고, 재미있어 한다.</p>	<p>48. 낯선 사람이 요구하면 가지고 있던 것을 쉽게 잡아보게 하거나 나누어 준다.</p>
<p>49.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하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달려간다. 반대: 나중에는 손님과 친해지더라도 처음에는 불안해하거나 울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간다.</p>	<p>50. 손님이 오면 나중에는 손님과 친해지더라도 처음에는 손님을 못 본체 하거나 회피한다.</p>
<p>51. 손님과 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매달리며 기어오르기를 좋아 한다. 반대: 손님과 놀 때 친밀한 접촉을 하지 않는다.</p>	<p>52 작은 물건을 다루거나 작은 물건을 한꺼번에 잡는 것이 어렵다. 반대: 작은 물건, 연필 등을 잘 다룬다.</p>
<p>53. 엄마가 안아주면 팔로 꼭 껴안거나 교사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다. 반대: 엄마가 안아주면 가만히 있기는 하나 특별히 꼭 껴안지는 않는다.</p>	<p>54.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방해하려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한다. 반대: 엄마가 직접 방해하지 않는 한 엄마의 도움을 쉽게 받아들인다.</p>
<p>55. 엄마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고서 엄마의 행동이나 행동방식을 많이 따라한다. 반대: 엄마의 행동을 눈에 띄게 따라하지는 않는다.</p>	<p>56. 어려워 보이는 활동이 있을 때 주눅거리거나 그 활동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 반대: 어려운 과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57. 겁이 없다. 반대: 조심하는 편이거나 겁이 많은 편이다.</p>	<p>58.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별 관심이 없다. 반대: 처음엔 다소 부끄러워하지만 손님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다.</p>
<p>59. 한 가지 놀이가 끝나면 대체로 교사에게 가지 않고 다른 놀이나 장난감을 스스로 찾는다. 반대: 한 가지 놀이가 끝나면 엄마에게 다른 놀이를 찾아달라고 한다.</p>	<p>60.엄마가 “괜찮아“, 다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처음에 무서워하던 것도 다가가 그것을 가지고 논다. (전혀 조심스러워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중간점수.)</p>
<p>61. 엄마와 거칠게 논다. 활동적인 놀이를 하는 동안 부딪치고 할퀴고 문다.(엄마를 헤치려는 의도는 아닐 수 있다.) 반대:교사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적극적인 놀이를 한다.</p>	<p>62. 행복한 기분일 때 하루 종일 그 기분을 유지한다. 반대: 행복한 기분이 수시로 바뀐다.</p>
<p>63. 무엇이든지 스스로 시도하기 전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길 원한다.</p>	<p>64. 어머니와 놀 때 어머니의 온몸에 기어오르기를 좋아한다. 반대: 놀 때, 어머니와의 친밀한 신체접촉을 특별히 많이 원하지는 않는다.</p>
<p>65. 자신이 하던 활동을 어머니가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하면 쉽게 화를 낸다(어머니가 새로 하라고 하는 활동이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던 것이라도.)</p>	<p>66. 집에 오신 손님이 아이에게 친절히 대해 주면 그 손님을 쉽게 좋아한다. 반대: 새로운 사람을 쉽게 좋아하지 않는다.</p>
<p>67. 집에 손님이 오실 때 손님이 자기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원한다.</p>	<p>68. 대체로 어머니보다 아이가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다. 반대: 대체로 어머니가 아이보다 더 적극적이다.</p>

<p>69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p>	<p>70.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면 크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를 금세 반긴다.(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엄마 안녕”이라고 말한다.)</p>
<p>71. 놀란 후나 화가 난 후에 어머니 팔에 안기면 울음을 멈추고 곧 진정한다. 반대: 쉽게 달래지지 않는다.</p>	<p>72. 손님이 아이가 한 것을 보고 웃거나 인정해 주면, 반복해서 그것을 한다. 반대: 손님의 반응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p>
<p>73. 기분이 나쁠 때, 들고 다니거나, 잘 때에 침대에 가지고 가거나, 안고 다니는 특별한 장난감이나 담요가 있다. 반대: 그런 물건이 있어도 그렇게 애착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그런 물건이 없다.</p>	<p>74.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머니가 당장 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마치 어머니가 그것을 전혀 해 주지 않을 예정인 것처럼 행동한다.</p>
<p>75. 집에서 어머니가 방 밖으로 나가면 화를 내거나 운다. 반대 : 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알아챈다.</p>	<p>76. 어른과 장난감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어른과 놀기보다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반대: 장난감보다는 어른과 더 낱이 논다.</p>
<p>77. 어머니가 무엇을 요구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한다. 반대: 때로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당황해 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늦다.</p>	<p>78. 부모나 조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안기기를 좋아한다.</p>
<p>79. 어머니에게 곧 잘 화를 낸다. 반대: 어머니가 방해가 되었거나, 아이가 피곤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p>	<p>80. 어떤 일이 위험스러워 보이거나 겁이 나면 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살펴본 후 행동을 결정한다. 반대: 어머니의 표정을 먼저 살피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p>

<p>81.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운다. 반대: 주로 진정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운다.</p>	<p>82.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가지 장난감이나 활동만을 가지고 대부분의 놀이 시간을 보낸다.</p>
<p>83. 심심해지면, 어머니에게 와서 무엇을 할지 찾아달라고 한다. 반대: 어떤 할 일이 생각날 때까지 잠시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p>	<p>84. 집 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려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다. 반대: 항상 자신에게 그리고 마루에다 무엇인가 엮지르고 더럽힌다.</p>
<p>85. 새로운 놀이나 장난감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반대: 친숙한 것 이외의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없다.</p>	<p>86. 어머니가 자기를 따라해 주기를 원하고, 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을 따라 해주면 쳐다보고 좋아한다.</p>
<p>87. 아이가 한 것을 보고, 어머니가 웃거나 인정해 주면 반복해서 그것을 한다. 반대: 어머니의 웃음, 인정에 의해 행동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는다.</p>	<p>88. 무엇인가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운다. 반대: 울면서 어머니에게로 달려간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p>
<p>89. 어떤 놀이에 몰두하면 얼굴 표정이 진지하고 분명하다.</p>	<p>90. 어머니가 아주 먼 곳까지 움직이면,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서 그 주위에서 놀이를 계속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거나 데리러 가지 않아도 된다.)</p>

<부록 3>

<모성 행동 Q-set>

1. 아이가 미소 짓고 목소리를 낼 때 알아차린다.	2. 아이가 보내는 괴로운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둔감하다.
3.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을 어머니 자신의 욕구와 기분에 따라 종종 해석한다.	4. 어머니가 반응을 너무 늦게 해서 아이가 어머니의 반응을 자기가 처음에 했던 행동과 관련시키지 못한다.
5. 아이가 괴로워하거나 울거나 칭얼거리거나 흐느껴 울 때 어머니가 알아차린다.	6. 아이의 반응으로 판단하건데, 어머니가 활발하고 흥미롭게 아기가 적절하게 상호작용한다.
7. 빈번하고 오래 지속되거나 강한 아기의 신호들에만 반응한다.	8. 아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일관성 없고 예측할 수 없다.
9. 아이의 신호들에 일관적으로 반응한다.	10. 방에 다시 들어올 때 어머니는 아이를 반갑게 맞는다.
11. 아이가 보내는 괴로운 신호들을 때때로 알고 있지만, 그런 신호들을 정확하게 해석한다.	12. 아이의 반응들로 미루어 보아, 어머니는 아이의 신호들을 정확하게 해석한다.
13. 아이의 요구들을 짜증스러워 한다.	14. 아이에게 야단친다.
15. 어머니의 기분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고 있다.	16.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려 한다.
17. 아이가 버릇없이 될까봐 걱정하며, 아이를 돌보는데 “를 꼭 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 많다.	18. 아기와 어머니 자신의 필요를 고려하여 환경을 구성한다.

<p>19. 아기의 부정적인 행동을 어머니에 대한 거부로 지각하고, 아이가 버릇없이 말 안 듣는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p>	<p>20. 아이가 보내는 괴로운 신호들이나 관심을 끌려는 행동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다.</p>
<p>21. 아이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p>	<p>22.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 :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는 그런 감정을 옆으로 미뤄 놓을 수 있다.</p>
<p>23. 아이를 한 개인으로서 존중한다. 비록 어머니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다.</p>	<p>24.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좋은 정보자 이다.</p>
<p>25. 아이를 이상화한다.(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다)</p>	<p>26. 아이에 대한 설명이 비관적이다.</p>
<p>27. 어머니로서의 의무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워 는 듯 한 태도를 보인다.</p>	<p>28. 아이가 즐거워하는 수준 이상으로 아이를 계속 집적거린다.</p>
<p>29. 얼굴을 마주보고 상호작용 할 때 속도를 늦추어 아이의 반응을 기다린다.</p>	<p>30. 아이가 함께 까꿍 놀이, 짹까꿍과 같은 게임을 한다.</p>
<p>31. 쇼핑이나 친구 집 방문과 같은 “나들이”에 아이를 데려가려 노력한다.</p>	<p>32. 연령에 적절한 장난감을 제공한다.</p>
<p>33.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한다.</p>	<p>34. 아이와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상호작용을 추구한다.</p>

35. 아이의 주변 환경에 있는 재미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사물의 이름을 말해준다.	36. 아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분이다.
37. 아이에 대해 말할 때 설명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38. 접촉을 통해 애정을 표현한다.
39.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전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아이를 안는다 : 아이를 어머니 몸에 맞추어 안는다.	40. 아이에게 칭찬한다.
41. 아이와 무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42. 아이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한다.
43. 애정을 표현하는 주요방식으로 아이의 볼에 뽀뽀한다.	44. 아이의 움직임일 때 어머니는 일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45.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 아이의 주도성을 격려한다.	46.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 아이에게 신호를 하고 아이의 반응을 기다린다.
47.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 아이의 움직임과 음식먹이는 일간의 균형을 맞춰준다.	48. 영양 간식을 제공한다.
49. 환경이 안전하다.“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다.	50. 아이가 더럽혀질 수 있거나 배설할 것 같을 때 아이가 적절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도 아이의 행동을 때때로 중단시킨다.
51. 아이에게 먹이는 동안 아이가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며, 이러한 걱정이 때때로 아이에게 음식 먹이는 것에 지장을 준다.	52. 어머니는 아이가 위험 할 것 같은 활동을 할 때도 그만두게 못한다.

53.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한다. 아이가 즐거워하는 상호작용을 끝마칠 때 아이를 배려한다.	54. 아이의 속도나 현재 상태에 맞춰 상호작용한다.
55. 아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어머니는 일련의 개입을 반복하며, 종종 시행착오를 한다.	56. 항상 아이가 옷을 잘 입었는지 예쁘게 보이는지 매우 걱정한다.
57. 끊임없이 무계획적으로 자극을 제시하여, 아이를 벅차게 한다.	58. 아이의 기분과 상태의 변화를 알아차린다.
59. 거칠거나 간섭 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한다.	60. 아이가 피로워할 때, 어머니는 그 원인을 빨리 정확하게 안다.
61. 같은 방에 있지 않을 때조차 아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62. 다른 사람과의 면담에 몰두하느라 아이를 무시하고 있을 때가 있다.
63. 요리나 손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도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에게 반응한다.	64. 아이의 울음/흐느껴 우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65.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것과 어머니가 할 일을 하는 것 사이에 주의를 적절히 분산시키지 못하여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을 놓친다.	66. 아이의 신호를 지각하기 위해 어머니의 위치를 조정한다.
67. 아이와 같은 방에 있을 때, 아이가 어머니에게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68. 종종 아이가 피로워하는 것이나 관심을 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차단시키는 것 같다.
69. 어머니는 상황에 벅차하며 우울해 보인다.	70. 아이의 피로운 신호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지만, 아이의 긍정적인 정서신호는 종종 무시한다.

<p>71. 아이가 기분이 나쁘거나 칭얼거릴 때 어머니는 아이로 인해 방해받지 않기 위해 종종 아이를 다른 방에 둔다.</p>	<p>72. 언뜻 보기에, 가정에 아이가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p>
<p>73. 아이와의 상호작용의 내용과 속도가 아이의 반응에 따라 하기보다는 어머니에 의해 설정되는 것 같다.</p>	<p>74. 얼굴을 마주보고 놀이하는 동안 아이가 보내는 “천천히 해요”의 신호들을 놓친다.</p>
<p>75. 아이의 현재 능력을 확실히 능가하는 게임이나 활동에 아이를 참여시키려고 시도한다.</p>	<p>76. 때때로 아이와의 상호작용 도중에 손님에게 말을 걸거나 감자기 떼오른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 아이와의 관계를 끊는다.</p>
<p>77. 아이를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종종 아이를 텔레비전 앞에 놓아 둔다.</p>	<p>78. 낮잠시간은 아이의 즉각적인 요구에 의해서보다는 어머니의 편의에 의해 결정된다.</p>
<p>79. 어떤 활동이나 물건의 의미나 명칭을 가르치려는 듯이 아기에게 신중하고 천천히 단어를 자주 반복한다.</p>	<p>80. 어머니는 아이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p>
<p>81. 일상적인 가사 일을 수행하기 위해 보행기나 유아용 놀이 틀을 자주 사용한다.</p>	<p>82. 외출 시 아이 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p>
<p>83. 아이에게 일종의 ‘신호’나 ‘설명’(예를 들어, “금방 올게”) 없이 방을 떠난다.</p>	<p>84. 어머니가 아이 주변을 움직일 때나 아이의 자세를 고쳐줄 때 때때로 아이를 무생물처럼 다룬다.</p>
<p>85. 남편이나 가까운 친척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매우 꺼린다.</p>	<p>86. 손님과 아이의 상호작용을 격려한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손님을 소개한다.</p>

<p>87. 얼굴을 마주보고 아이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할 때 어색해하고 불편해한다.</p>	<p>88. 손님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종종 아이가 같은 방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하다.</p>
<p>89. 더러운 옷에 매우 민감해한다.</p>	<p>90. 종종 아이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장난감이나 다음 물건을 가져가서 아이가 그 것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p>

<부록 4>

1 회기	
목표	모-아간의 신체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향상하고, 애정표현을 증진시킨다.
활동내용	<폴짝폴짝>, <손뼉치고>, <엄마별 아빠별> 엄마와 함께 손뼉치고, 신체접촉하기, 신체인식하기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Creating, Relaxation
사용악기	기타, 피아노, 키보드, 손목방울, 패들드럼, 게더링 드럼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쾌한 2박자의 곡의 리듬은 뛰고 걷는 다양한 동작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며, 리듬의 반복 사용은 엄마와 유아의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악기연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같은 리듬을 표현 대상에 따라 템포 및 소리크기를 조정해 줌으로써 유아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엄마와 유아의 신체접촉은 대뇌피질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촉진되어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손 마사지, 안아주기, 손잡기, 눈 마주침, 손뼉을 마주치고 어깨를 주무르기 등의 신체접촉을 통하여 유아는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발달의 안정감을 얻으며 신뢰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고 자기 인식을 통하여 신체상에 대한 지각을 갖게 되므로 신체 접촉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2 회기	
목표	도구를 이용하여 모-아간 신체접촉을 향상하고, 애정표현을 증진시킨다.
활동내용	<주머니를 만들어요>, <엄마 캥거루>, <작은 별>, <엄마별이 올라갑니다> 손으로 만든 주머니에 공 넣기, 별나라 여행하기,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신체접촉 활동,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사용악기 및 도구	기타, 키보드, 피아노, 핑거심벌, 우드블럭, 핸드벨, 날건반, 큰 천, 작은 천, 공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안에서 일정한 프레이즈의 사용은 엄마와 유아에게 공을 직접 넣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어진 활동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주어진 역할과 순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여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노래 안에서 엄마와 유아가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활동은 유아의 욕구나 상태를 더 많이 인식하게 하여 유아로 하여금 더 많이 반응을 하도록 도와주고, 부모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어 주변 사물에 흥미와 즐거움을 주어 자신감 및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신체접촉을 통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점차 신체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부모와 분리된 존재로서 자신을 느끼게 되어 자신을 사회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한다.

	3 회기
목표	다양한 악기 연주와 모-아간 모방활동을 통해 표현력을 향상시킨다.
활동내용	<예쁜 종소리>, <연주해봐요>, <작은 별>, <곰 세 마리> 엄마별 친구별 찾아가기,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기, 즉흥연주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Relaxation
사용 도구	기타, 키보드, 트라이앵글, 핑거심벌, 윈드차임, 날건반 (C,E,G), 핸드벨(C,E,G), 악기채, 우드블럭, 별 그림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벨 및 날건반의 화성으로 엄마와 유아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활동을 통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청각적인 풍부함을 통하여 활동 내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지지받고 있다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활동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청각적 자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유아와 엄마가 별을 상상하고, 빛나는 모습을 생각하며 유아와 엄마가 별나라를 가도록 하는 활동은 엄마가 엄마별이 되어보고 유아가 엄마별에 찾아가 엄마와 함께 연주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와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보고 다시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다른 별에 가서 연주하는 것은 엄마와의 상호교류가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별나라에 어떻게 갈지 엄마와 함께 의논해보는 과정은 엄마와 유아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며 의논한 생각을 그룹 전체가 모방해주었을 때, 엄마와 유아는 자신들의 생각이 지지 받은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해준다.

	4 회기
목표	모-아간 의견 수렴을 통해 의견 존중하는 범을 배우고,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활동내용	<손을 쥐옥>, <엄마와 함께 체조해요>, <유모레스크> 엄마와 협력해서 손 높이 쌓기, 친구들과 손 탑 쌓기, 엄마와 밴드 밀고 당기기, 친구들과 밴드 밀고, 당기기
적용되는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사용악기 및 도구	기타, 키보드, 밴드(개인용, 단체용)
치료적 역할	- 유아의 손과 엄마의 손이 포개어져 교대로 쌓이는 경험을 통해서 엄마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과 함께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손을 쌓는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엄마와 유아가 서로의 동작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경험을 제공해준다. 손 위에 손을 쌓는 것은 손을 잡거나, 물건을 잡던 때와 달리 유아의 손아래 위로 다른 사람의 손이 있다는 면에서 다른 촉각적 자극이 될 뿐 아니라 손을 내밀고 올바른 위치에서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엄마와 유아가 함께 완성하는 경험을 제공해주며 함께 했다는 큰 성취감을 줄 수 있다.

- 부점이 나오는 음악에 밴드를 사용한 동작을 하는 것은 유아와 엄마가 음악에 맞추어 동작의 일치성을 갖도록 해준다. 엄마와 유아가 밴드의 양 끝을 잡고 부점 진행에서는 밴드를 자유롭게 흔들다가, 음 하나가 지속되는 때에는 밴드를 쪽 늘여보는 동작은 엄마와 유아가 음악에 귀 기울여 그 느낌에 따라 움직이도록 도와준다. 특히 음이 지속될 때 엄마와 유아가 함께 잡아당겨야 원하는 대로 밴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동작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같은 동작을 같은 때에 함으로써 엄마와 일치성을 느끼게 해준다.

	5회기
목표	모-아 간 신체접촉을 통해 서로의 신체를 인식하고, 놀이를 통해 의견 수렴 및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활동내용	<기차놀이>, <콧콧 콧콧>, <동대문을 열어라> 신나는 기차여행, 기관장 되어보기, 터널 건너보기, 점토 및 도구를 활용한 신체접촉 및 신체인식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사용악기 및 도구	기타, 키보드, 나팔, 휘슬, 자일로폰, 카바사, 패들드럼, 캐스터네츠, 스카프, 별모양 스티커, 점토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에게 어디를 여행할 것인지, 누구를 태울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게 하는 활동으로써 유아는 모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고 모든 책임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 기존에 밀착 되어있던 유아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음악이라는 풍부한 청각적 자극과 안전한 환경 안에서 유아가 스스로 결정하고 여행을 떠나보는 분리화의 과정을 통하여 유아에게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유아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엄마와 함께 서로의 신체를 눌러보고 종이를 뚫어보고 그 구멍을 통해 엄마와 서로 마주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 엄마, 동료들 인식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음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경험으로 하여금 신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6회기
목표	모-아간 의견 수렴을 통해 협동심을 증진시키고, 의견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활동내용	<그대로 멈춰라>, <다 같이 춤을 춰요>, <동물원> <거미와 코끼리>, <거미줄> 자유롭게 춤추기, 자기 표현하기, 동물 흉내 내기, 원하는 동물을 만나러 동물원에 가기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Listening, Creating
사용악기 및 도구	기타, 키보드, 동물소리 악기(소, 양, 새, 고양이), 휘슬, 자일로폰, 튜바노, CD 플레이어, 동물 그림카드, 모루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소리를 표현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사물을 관찰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엄마의 목소리와 몸짓 등의 흉내 내는 동물 소리를 주의집중해서 들어보고 모방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소리에 흥미를 느끼도록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소리를 인식하게 하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음악 감상을 통하여 엄마와 유아가 서로 마주보고 동물을 흉내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과 눈 마주침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도록 한다. 음악의 아르페지오 진행은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어 엄마와 유아가 동물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적합하며, 느린 템포의 음악은 유아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준다.

	7회기
목표	적절한 감정 표현을 통해 모-아간 강압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활동내용	<뽕뽕 이가 좋아요>, <사이좋게 지내자>, <쌓아보아요>, <놀러가기>, <정글숲>, <괜찮아> 노래를 통한 감정 표현하기, 나무토막 쌓기를 통해 자기 순서 익히기, 엄마와 신체 접촉하기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Creating, Moving
사용악기 및 도구	기타, 키보드, 피아노, 카바사, 패들드럼, 우드블럭, 레인 스틱, 탬버린, 패들드럼, 게더링 드럼, 마라카스, 트라이앵글, 새 인형, 젠가, 가면, 스카프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의 감정을 음악의 템포, 크기 등으로 표현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로 하여금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함으로써 엄마와 아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의 감정을 올바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화내는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감정임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분노나 화를 억지로 누르게 하기보다는 노래 혹은 악기 연주 등의 방법으로 승화시키도록 기회를 제공해준다. - 음악을 들으며 엄마와 유아가 함께 쌓기 놀이를 하는 것은 음악이 제공하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너와 나의 순서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규칙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8회기	
목표	음악 안에서 모-아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부모의 강압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활동내용	<테스테스 톡>, <떼굴떼굴> 마음의 높이를 맞춰 의견조율하기, 공 굴리며 자신의 순서를 익히기, 기다리는 방법 익히기, 공과 곶을 이용한 파라슈트 놀이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사용악기	기타, 키보드, 작은 공, 큰 공 파라슈트, 곶 인형,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와 엄마, 동료 간에 공을 주고받는 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며 함께 재미를 공유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때, 유아는 받기만 했을 때보다 더 큰 재미와 배움을 얻게 된다. 유아가 엄마 무릎에 앉았다가 다른 사람의 무릎에 앉아보고 다시 엄마에게 돌아오는 놀이에서 경쾌한 음악의 사용은 유아가 혼자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또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지지적인 역할을 한다. - 엄마와 유아의 신체 접촉은 유아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 신뢰감 등을 갖게 함으로써 엄마와 유아에게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도 협동심 뿐 만 아니라 타인을 도우려는 태도가 발달하게 된다.

	9회기
목표	엄마의 일관적인 지지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비일관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활동내용	<어디 있을까>, <엄마 집에 놀러가기>, <어떤 소리 있을까> 패들드럼과 스카프를 이용한 까꿍 놀이, 자연의 소리 탐색하기, 엄마의 일관적인 악기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겨주기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Listening
사용악기	기타, 키보드, 피아노, 패들드럼, 우드블럭, 새소리 악기, 레인스틱, 오션드럼, 윈드차임, 새소리 악기, 카바사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들드럼을 이용한 까꿍 놀이는 눈 맞춤을 통하여 아이에게 편안함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엄마와 유아가 상호작용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에서 제공하는 시·공간은 부모와 아이와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므로 아이가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음악의 다양한 청각적 자극은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소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활동에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 뿐 아니라 소리자연의 소리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유아의 인지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엄마로부터 듣는 다양한 청각적 피드백은 아이로 하여금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아이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10회기
목표	엄마의 일관적인 지지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비일관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활동내용	<산뜻한 바람 불어와>, <American patrol>, <너는 소중한 아이> 메아리쳐보기, 음악에 맞추어 자기 표현하기, 색종이 찢기, 툭툭히 비닐 신체 이용해서 터트리기, 아이에 대한 사랑 표현하기
음악활동	Singing, Moving, Playing
사용악기	기타, 키보드, 핸드벨(C,E,G,), 툭툭히 비닐, 색종이, CD 플레이어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안에서 '야호'를 시작으로 '사랑해'까지 다양한 말을 표현해 보는 활동은 평상 시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감정을 정화시킬 뿐 아니라, 엄마와 유아가 서로를 모방하고 배려하게 됨으로써 서로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을 가질 수 있어 유아는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신체적인 접촉은 또 다른 방식의 의사표현으로 음악의 빠르기와 강도에 따라 유아의 신체접촉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볍고 조용한 음악을 들을 시 유아는 가벼운 터치 하나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느끼기도 할 수 있다.

크고 강한 비트의 음악을 들을 시 신체표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평상 시 엄마의 신체표현은 유아에게는 엄마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자제할 때 어떤 식의 신체적 접촉과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음악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11회기
목표	모-아간 신뢰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분리를 함으로써 유아에게 독립적 행동을 증진시킨다.
활동내용	<엄마와 체조해요>, <북을 연주해>, <사탕나라로 콩>, <고기 잡이>, <사이좋은 친구> 하늘로 점프하기, 콩콩 뛰기, 마음에 드는 악기 및 그림카드 잡기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사용악기 및 도구	기타, 키보드, 악기채, 패들드럼, 케더링 드럼, 귀로, 우드블럭, 롤리팝, 탬버린, 에그셰이커, 자석, 줄, 동물카드, 악기그림 카드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에게 직접 북을 들고 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에게 중요한 임무를 통해 책임감이 생기도록 할 뿐 아니라, 유아가 제시한 북을 모두가 함께 연주해주면서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엄마가 믿고 유아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안정감 속에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 엄마와 유아가 한 팀이 되어 악기를 연주하고 서로의 차례를 기다려주고 지지하는 것은 유아에게 ‘엄마’ 라는 안정적인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엄마와 교류하며 자율감을 충분히 맛보도록 해줌으로써 환경을 탐색하거나 지배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또래관계 뿐 아니라 대집단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12회기
목표	모-아, 동료 간 연상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독립적 행동을 향상시킨다.
활동내용	<꽃밭 나들이>, <시계> 꿀 벌 되어 보기, 꽃이 되어 보기, 꿀 따먹기, 엄마와 나들이 가기, 음악 쌓기 놀이, 음악 소거 놀이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Listening
사용악기	기타, 키보드, 패들드럼, 핸드벨(F, A, C), 우드블럭, 파티용 피리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와의 충분한 교류는 유아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이 된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꿀을 먹으러 다른 집으로 놀러가는 활동에서 소리가 그 매체가 되어서 유아들을 활동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아가 장소가 바뀌거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준다. - 음악적인 쌓기를 통해서 유아는 자신이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소리를 통해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연주할 때, 엄마가 연주할 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연주할 때를 인지하게 되고, 소리가 더해질 때와 빼질 때의 차이를 노래를 통해 쉽게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소리, 악기, 역할에 대한 개념이 형성될 뿐 아니라, 엄마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경험을 느끼게 하며, 엄마와의 신뢰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13회기
<p style="text-align: center;">목표</p>	<p>모-아가 직접 악기를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연주해봄으로써 유아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고, 동료 간 사회적인 교류를 증진시킨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내용</p>	<p><우리 모두 다같이>, <즐겁게 춤을 추다가>, <다 같이 춤을 춰요>, <날 따라 해봐요> 나만의 악기 만들기, 친구들 앞에서 악기 연주하기, 엄마·자녀·친구 행동 모방하기, 엄마·자녀·친구 악기 연주 모방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음악활동</p>	<p>Singing, Playing, Moving, Creating</p>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악기 및 도구</p>	<p>기타, 키보드, 피아노, 날건반, 칼라벨, 패들드럼, 악기 채, 에그셰이커, 귀로, 플라스틱 통, 알루미늄 통, 테이프, 쌀, 콩, 나무젓가락, 스티커</p>
<p style="text-align: center;">치료적 역할</p>	<p>- 유아와 엄마가 함께 악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엄마와 함께 의견을 나누며 함께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완성된 악기를 엄마와 함께 동료들 앞에서 연주하게 함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성취한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도록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부모와 유아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상호 존중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부모는 유아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 말투, 표정, 행동 등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도록 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진정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p>

-
- 유아들의 동작을 엄마가 그대로 모방해주고 지지해주어 유아들이 더욱 자신감 있게 동작을 표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표정, 몸짓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통하여 부모에게 유아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여 유아들이 일관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경험을 통해 유아의 안정적인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
-

14회기	
목표	유아가 엄마를 인도하며 연주함으로써 유아의 독립적인 행동을 증진시키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다.
활동내용	<눈은 어디 있나>, <사과 같은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악기콩>, <걸어요>, 노래 부르며 신체 인식하기, 유명인이 되어 텔레비전에 출연하기, 아이가 엄마 인도하며 연주하기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Creating
사용악기	기타, 키보드, 패들드럼, 악기채, 박스, 방석,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이 제공하는 프레이즈 안에서 엄마와 함께 방석을 뛰어 넘고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뛰어넘은 방석의 개수만큼 좀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뛰어내릴 때 엄마가 안아 줌으로써 불안이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유아에게 적절한 긴장감과 도전과제를 통해서 긴장의 해소를 경험하는 것은 엄마와의 건강한 분리에 도움을 준다. - 유아에게 작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유아는 독립심을 갖고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엄마와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그것을 칭찬한다는 것은 유아로 하여금 독립심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 된다. 어려운 과제를 마치고 힘들어도 만족을 얻는 것처럼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내면 더욱 만족감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칭찬을 통해 성취감이 배가시키는 것임을 부모에게 간접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다.

	15회기
목표	연주 발표회를 통해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성취감을 맛본다.
활동내용	<유모레스크>, <기차소리>, <어떤 소리> 가장 즐거웠던 활동 리마인드 하기 우리들의 멋진 하루, 악기연주 및 발표회
음악활동	Singing, Playing, Moving
사용악기	기타, 키보드, 피아노, 날건반, 패들드럼, 코끼리코, 아고고벨, 플렉사톤, 카우벨, 비브라슬랩, 캐스터네츠, 밴드(단체용)
치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와 이미 경험했던 활동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엄마와 내가 함께 아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을 가질 수 있고, 유아는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엄마가 유아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와 선물을 통해서 엄마가 표현하는 방법을 유아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경험이 된다. - 음악을 듣고 그 특징을 몸과 악기로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소리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유아가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반복해주는 것은 유아의 집중력에 도움이 되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과 엄마가 유아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후, 충분한 시간 기다려줌으로써 유아가 충분히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